



태권도진흥재단
Taekwondo Promotion Foundation

국립태권도박물관 주요 소장품도록

(1950~1960년대)

국립태권도박물관 주요 소장품도록 (1950~1960년대)

TPF 태권도진흥재단
Taekwondo Promotion Foundation



국립태권도박물관 주요 소장품도록

(1950~1960년대)

일러두기

- 도록에 실린 도판의 저작권은 태권도진흥재단에 있으며, 도록에 게재된 모든 내용 및 자료는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 도록에 수록된 모든 글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내용 전개 상 필요한 경우에는 한문 또는 외국어를 병기하였다.
- 도판 정보는 이름(국문·영문), 시대, 크기, 기증자 순으로 표기하였다.
- 유물의 크기 단위는 cm이며, 가로·세로·높이 순으로 표기하였다.

국립태권도박물관 주요 소장품도록

발간사

태권도진흥재단에서는 이번 도록을 통해 박물관 소장품 중 1950~1960년대의 다양한 자료들을 모아 소개하고자 합니다.

태권도사책에서 1950~60년대는 태권도의 형성기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각 관館에서 다르게 불리고 전수되던 태권도가 하나로 통합되어 지금의 ‘태권도跆拳道’라는 명칭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태권도 경기대회가 개최되고, 경기규칙이 만들어져 경기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입니다.

이번 도록을 통해 현재의 태권도가 전세계인들이 즐기는 K-SPORTS가 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진 초기 태권도인들의 땀방울이 묻어있는 소중한 자료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립태권도박물관은 태권도 전문 박물관으로서 태권도의 과거와 현재를 보존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추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소중한 자료들을 기증해주신 기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도록 발간을 위해 애쓴 장희식 관장과 박물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1년 12월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오 응 환**



PART 1

체(體)

태권도인의 수련

07P

- 보호장비
- 도복
- 단증

PART 2

인(認)

태권도인의 성취

37P

- 표창장
- 상장
- 메달
- 트로피
- 대회관련 기념품 등

PART 3

지(至)

태권도인의 가르침

75P

- 교본
- 임명장
- 위촉장



논고

도판목록

— 95P —

— 107P —

- 송형석
- 허건식

CONTENTS



PART 1

체(體)

태권도인의 수련

태권도를 수련할 때 사용하는 보호장비와 도복, 그리고 수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단증을 한데 모았다.

태권도라는 명칭으로 통일되기 이전에 맨손무예는 각 관館에 의해 공수도, 당수도, 권법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수련·전수되었다. 그 중에서도 강덕원, 무덕관, 송도관, 오도관, 정도관, 지도관, 창무관, 청도관 그리고 한무관 9개의 관은 태권도의 통합 과정에 참여한 기간도장으로 불린다.

각 관들에서 발급한 단증과 협회 설립 이후의 단증까지 시대에 흐름에 따른 다양한 단증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태수도 수련의 목적은 어떠한 역경에 부닥치더라도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않고 당면한 일을 침착히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정력을 배양시킴과 아울러 어떠한 고통이라도 능히 견딜 수 있는 인내력을 기르는 데 있다. 즉 인격 완성을 위한 정신도야가 그 목적인 것이다.”

이교윤, 「백만인의 태수도교본(1965)」

01

무덕관 도복 Moodukkwan Uniform

1958 | 서상렬 기증

상의 | 품 61.5 길이 174.2

하의 | 허리둘레 50.5 길이 91 밑위 37.5

1958년에 제작된 무덕관 도복이다. 무덕관 도복은 상의의 옷깃과 밑단에 색이 들어간 테를 두르는 것이 특징이다.





02

무덕관 도복 Moodukkwon Uniform

1960년대 | 품 53 길이 81 | 강신철 기증

무덕관 3대 관장 홍종수 원로의 도복 상의와 띠 세트이다.



03

살보호대 Groin Protector

1950-1960년대 | 허리둘레 65 길이 21 | 최영길 기증

천으로 만들어진 살보호대이다. 남성 보호를 목적으로 도복 안에 착용하였다.



04

몸통보호구 Bamboo Protector

1950-1960년대 | 가슴둘레 63 길이 65 | 최영길 기증

태권도 경기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보호구는 대나무로 만든 몸통보호구이다. 대나무를 쪼개서 세로로 배열하고 솜으로 감싼 뒤 누벼서 만든다. 중앙에 홍색과 청색으로 팀을 나누어 표시하였는데 주로 홈팀은 청색, 원정팀은 홍색으로 된 보호구를 착용했다.



05

몸통보호구 Bamboo Protector

1950-1960년대 | 가슴둘레 62 길이 62 | 최영길 기증



06

몸통보호구 Bamboo Protector

1950-1960년대 | 가슴둘레 76 길이 70 | 최영길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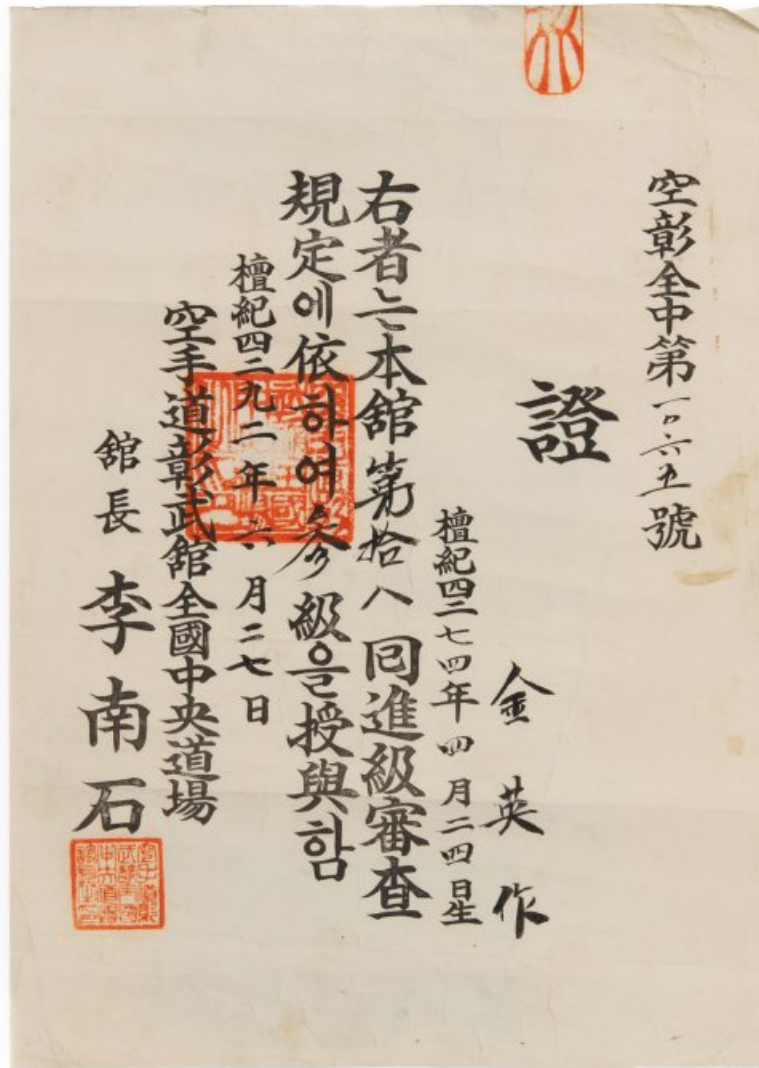
07

창무관* 3급증 Changmookwan Dan Certificate

1959 | 19.3x27 | 김영작 기증

김영작이 공수도창무관 전국중앙도장에서 1959년 3급에
진급함을 보여주는 증서이다.

* 1953년 YMCA권법부 출신 이남석과 김순배가 창무관彰武館을 창설
했다. 창무관은 영창고등학교의 '창彰'자와 무도인의 '무武'자를 합쳐
만든 것으로 두마리 용을 상징물로 삼았고, 충효, 성실, 인내를 관훈
으로 내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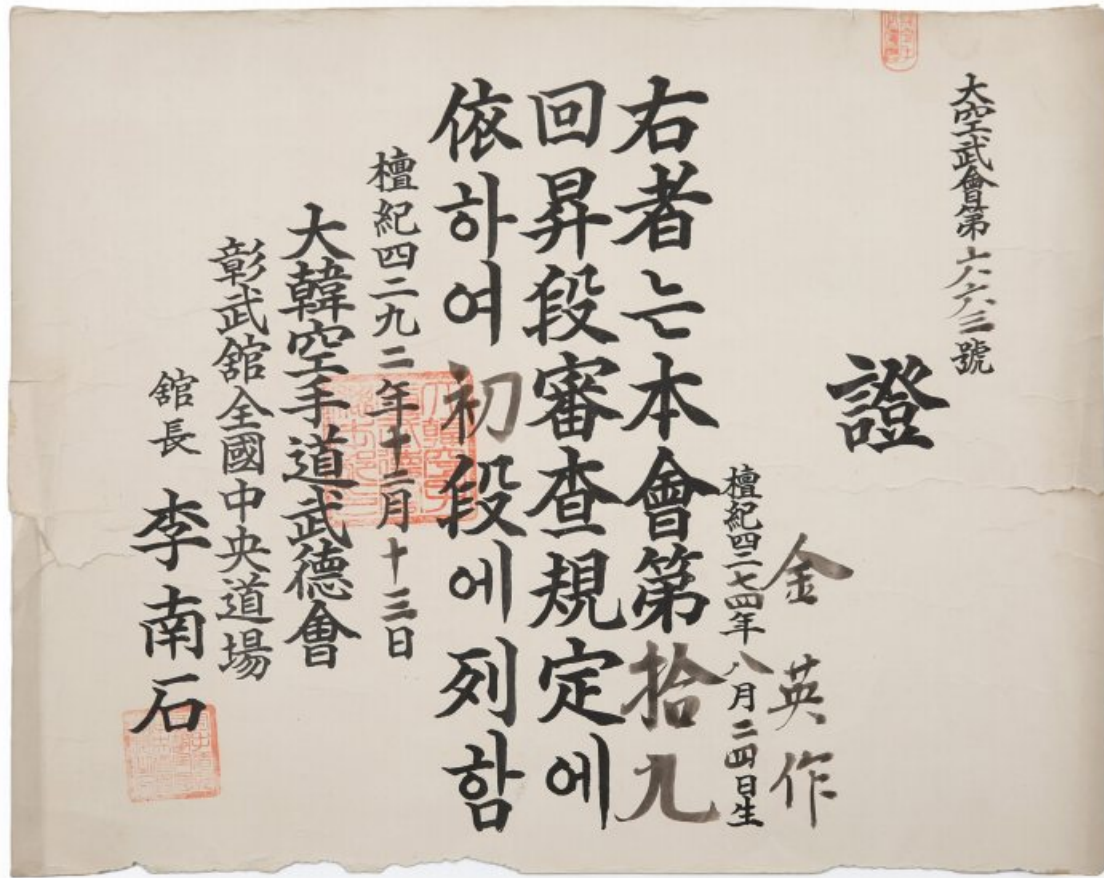


08

창무관 초단증 Changmookwan Dan Certificate

1959 | 44x34.5 | 김영작 기증

1959년에 김영작이 대한공수도무덕회 창무관 전국중앙도장에서 취득한 초단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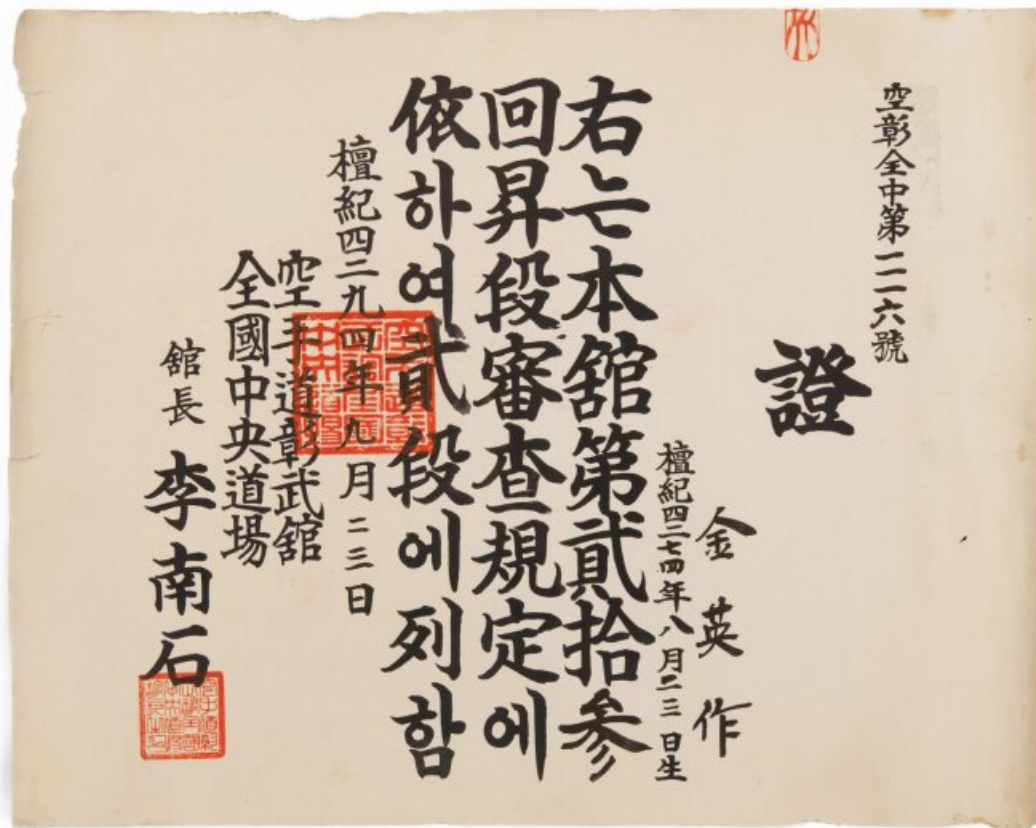


09

창무관 2단 단증 Changmookwan Dan Certificate

1961 | 43.4x34.7 | 김영작 기증

1961년에 김영작이 공수도창무관 전국중앙도장에서 취득한 2단 단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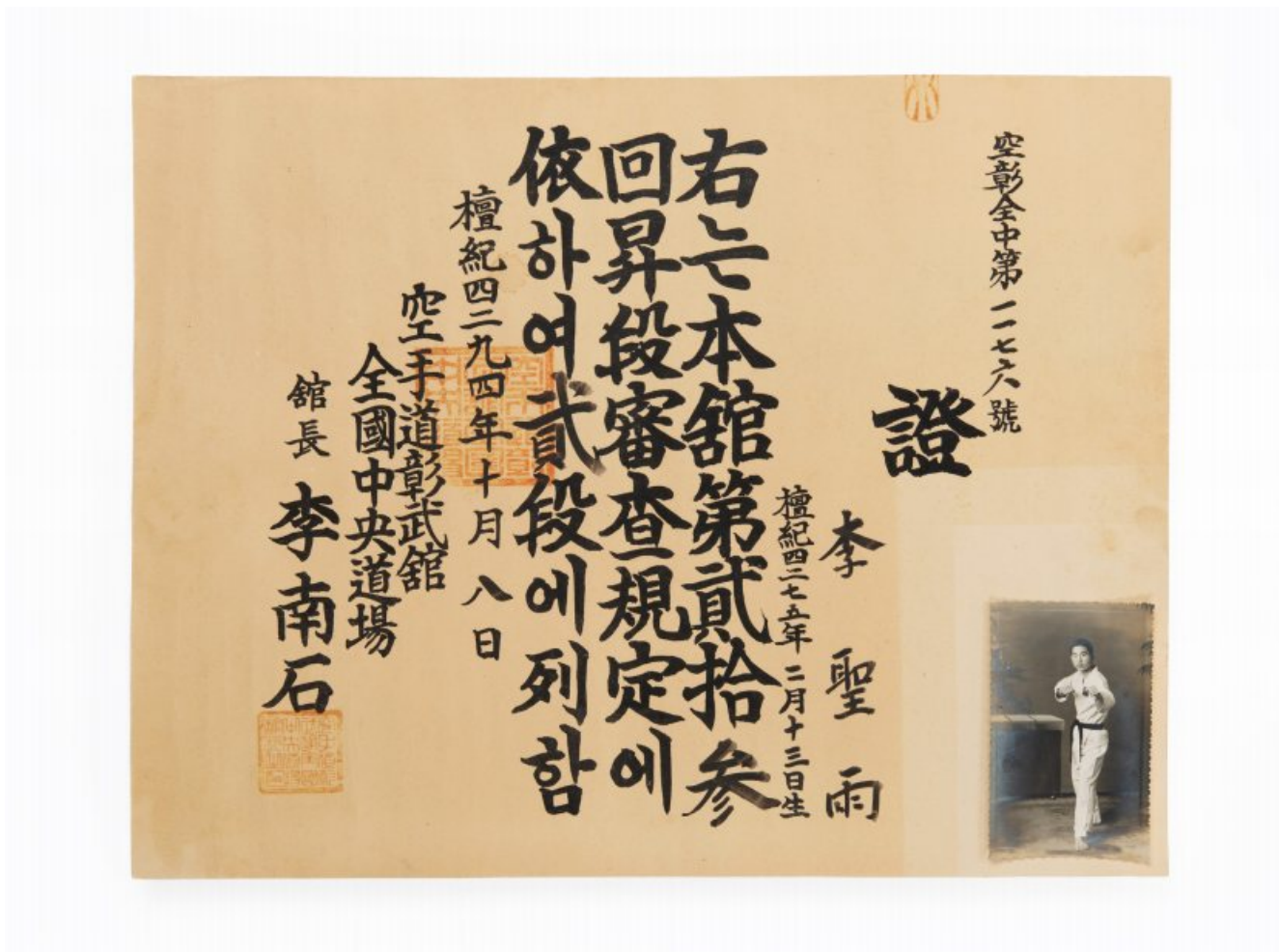


10

창무관 2단 단증 Changmookwan Dan Certificate

1961 | 42.5x35 | 이성우 기증

1961년에 이성우가 공수도창무관 전국중앙도장에서 취득한 2단 단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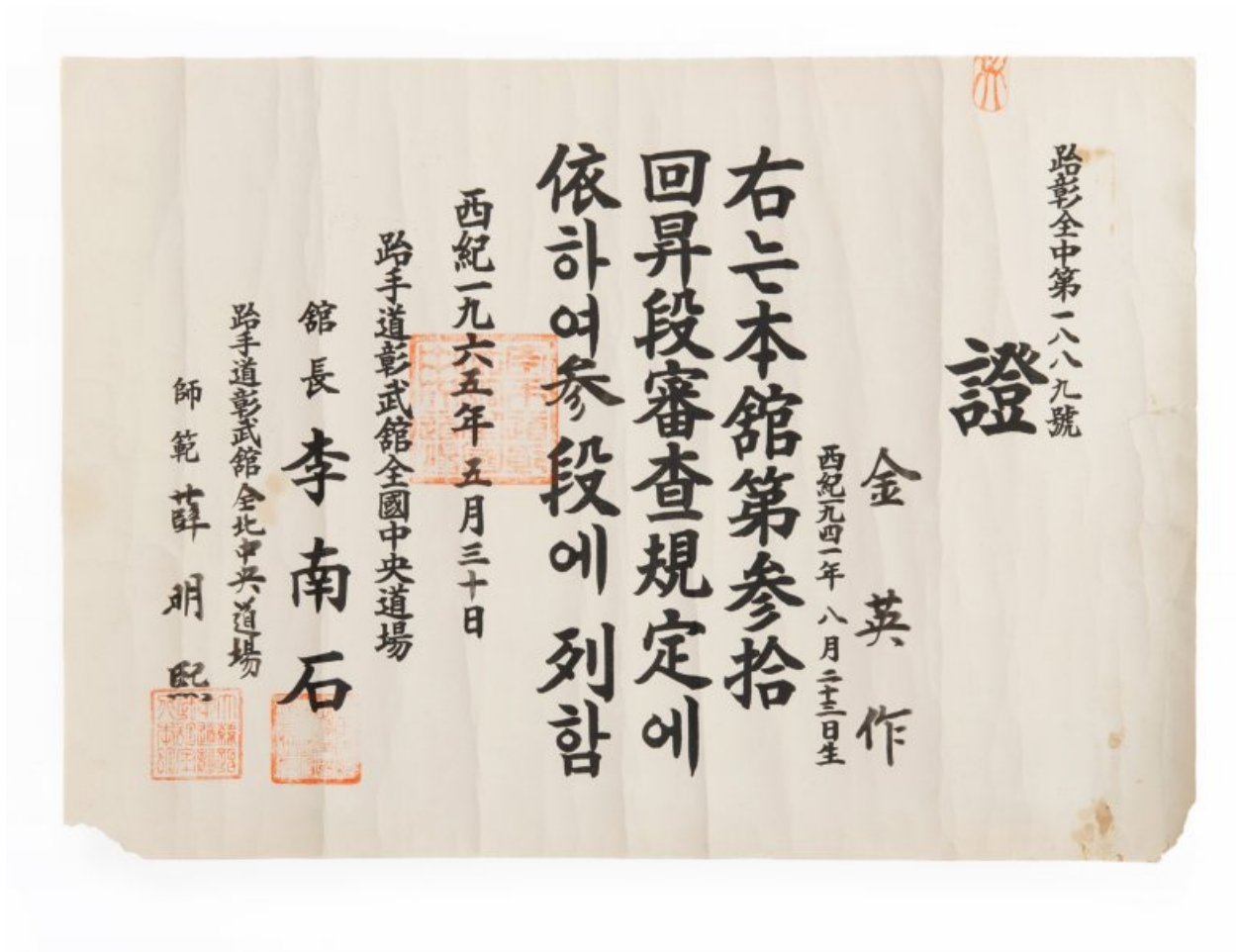


11

창무관 3단 단증 Changmookwan Dan Certificate

1965 | 55x32 | 김영작 기증

1965년에 김영작이 태수도창무관 전국중앙도장에서 취득한 3단 단증이다. 공수도에서 태수도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12

무덕관* 초단증 Moodukkwan Dan Certificate

1959 | 43.7x31.3 | 김선동 기증

1959년에 김선동이 대한당수도협회 무덕관에서 취득한 초단증이다.

* 무덕관武德館은 1946년 용산역 부근에서 황기가 '운수부우회 당수도부'를 개관하면서 시작되었다. 1955년 서울역 부근에 무덕관 중앙본관과 전국에 9개의 지관을 설치하였으며, 무덕관의 관훈은 무실, 신성, 정의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는 무덕관의 단증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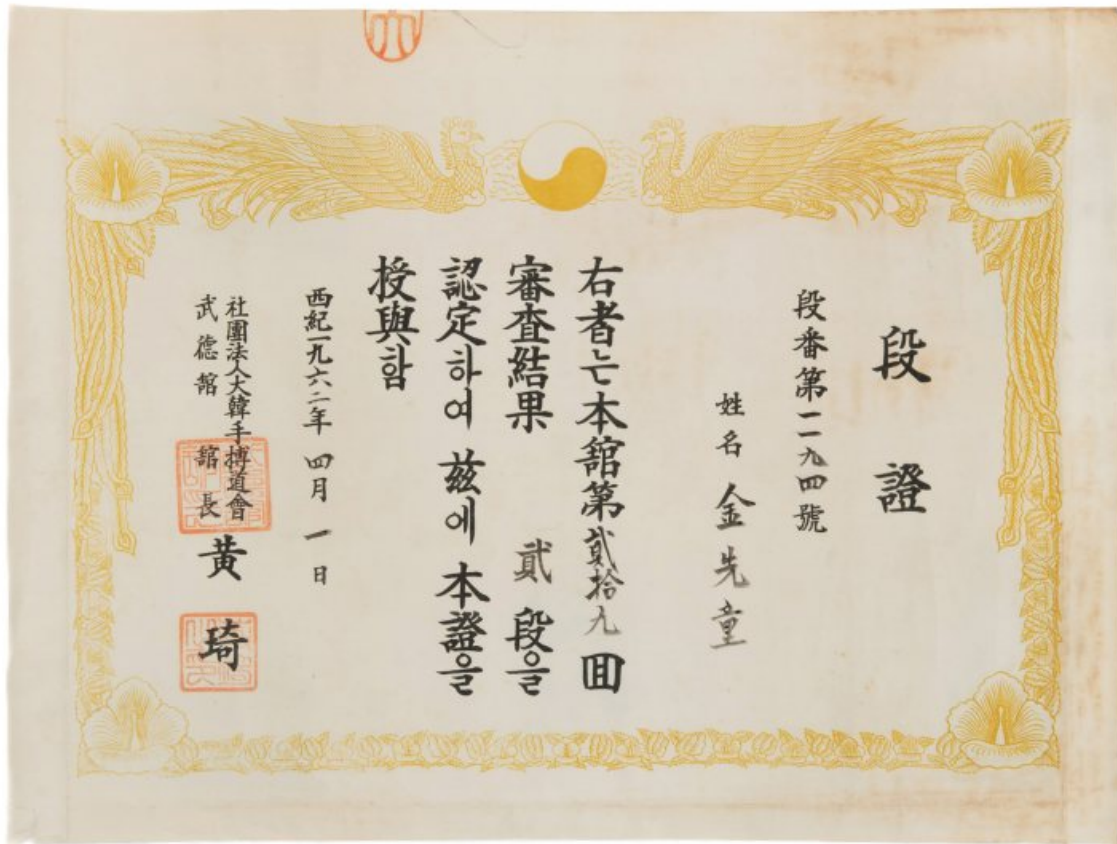


13

무덕관 2단 단증 Moodukkwon Dan Certificate

1962 | 42.7x32 | 김선동 기증

1962년에 김선동이 대한수박도회 무덕관에서 취득한 2단 단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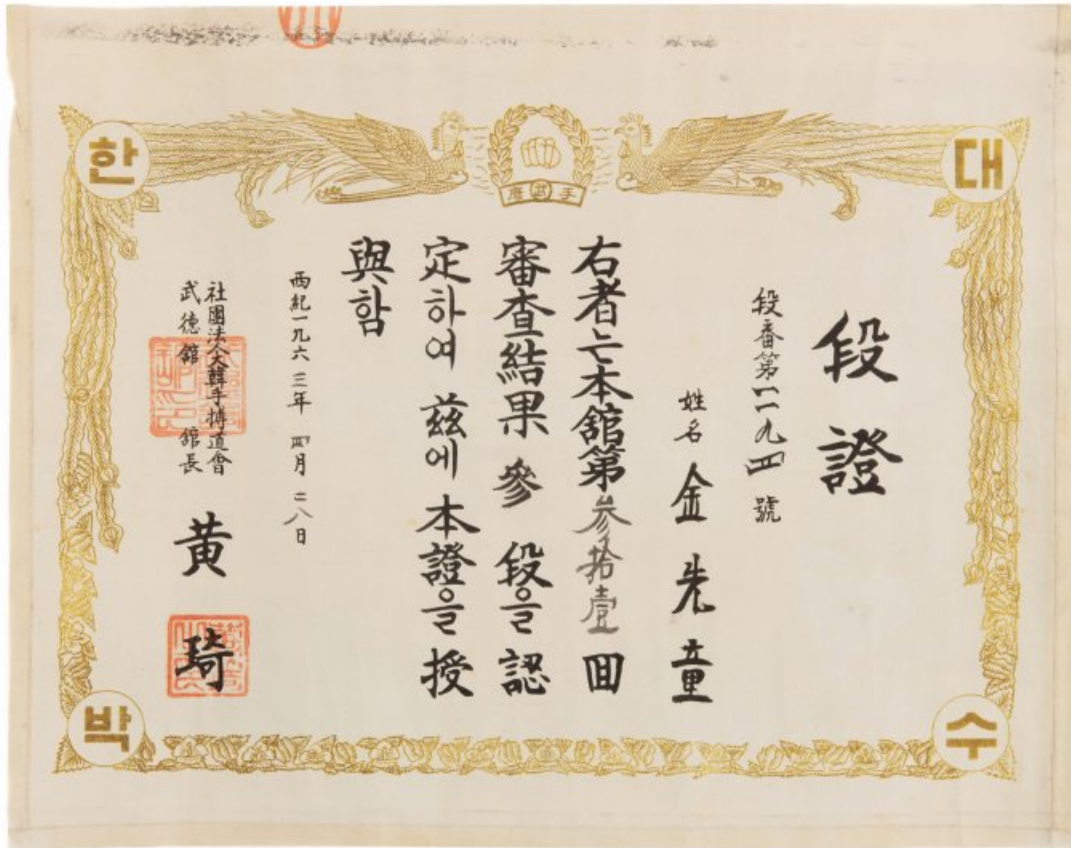


14

무덕관 3단 단증 Moodukkwan Dan Certificate

1963 | 39.2x30.6 | 김선동 기증

1963년에 김선동이 대한수박도회 무덕관에서 취득한 3단 단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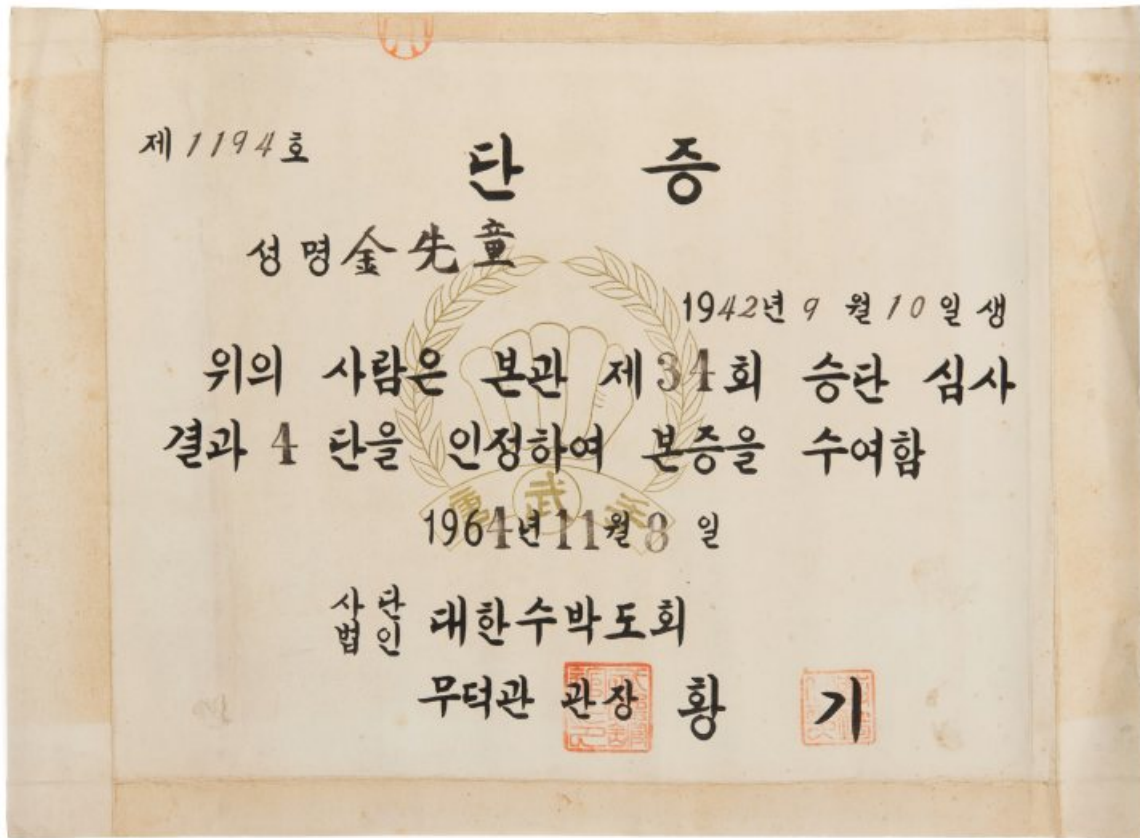


15

무덕관 4단 단증 Moodukwan Dan Certificate

1964 | 45.2x32.8 | 김선동 기증

1964년에 김선동이 대한수박도회 무덕관에서 취득한 4단 단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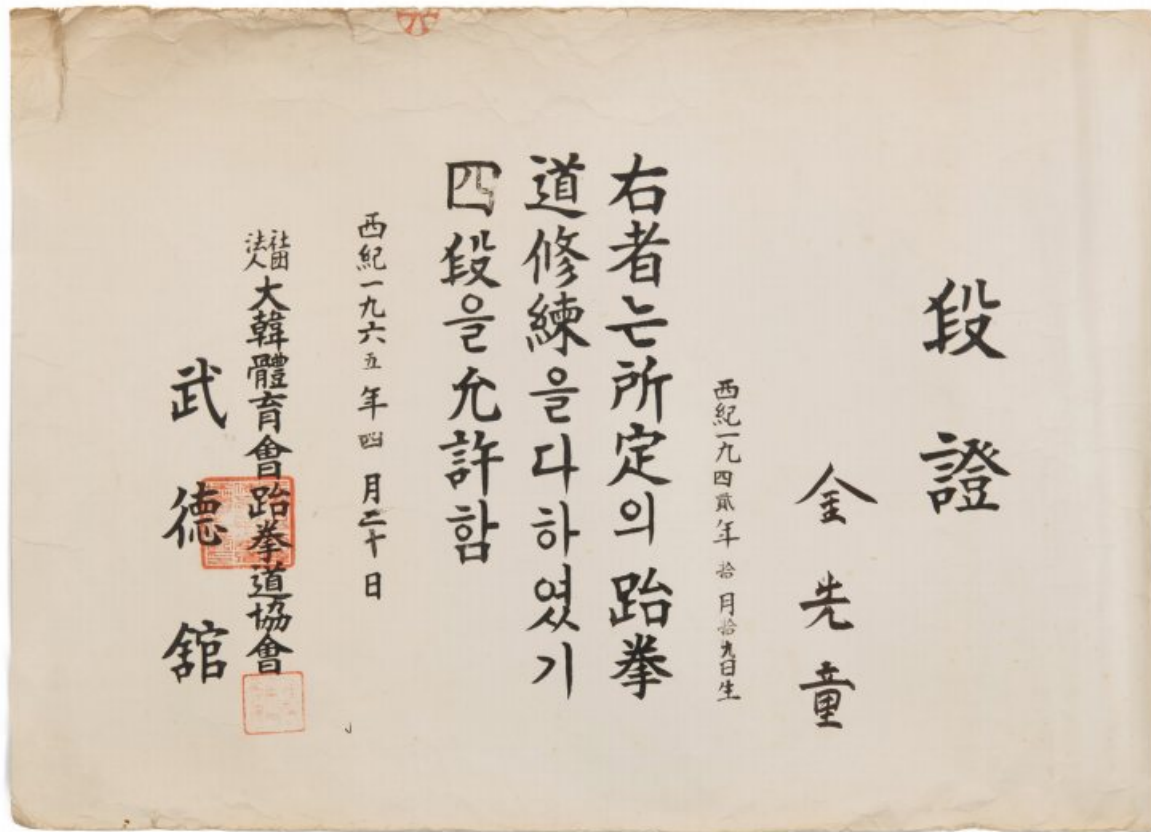


16

무덕관 4단 단증 Moodukkwan Dan Certificate

1965 | 54.2x39 | 김선동 기증

1965년에 김선동이 대한체육회태권도협회 무덕관에서 취득한 4단 단증이다. 대한수박도회 무덕관에서 대한체육회 태권도협회 무덕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7

무덕관 5단 단증 Moodukkwon Dan Certificate

1969 | 52.8x37.8 | 김선동 기증

1969년에 김선동이 대한체육회태권도협회 무덕관에서 취득한 5단 단증이다. 단증에 사진과 영문표기가 추가되고, 중앙에 무덕관을 상징하는 엠블럼이 들어가는 등 양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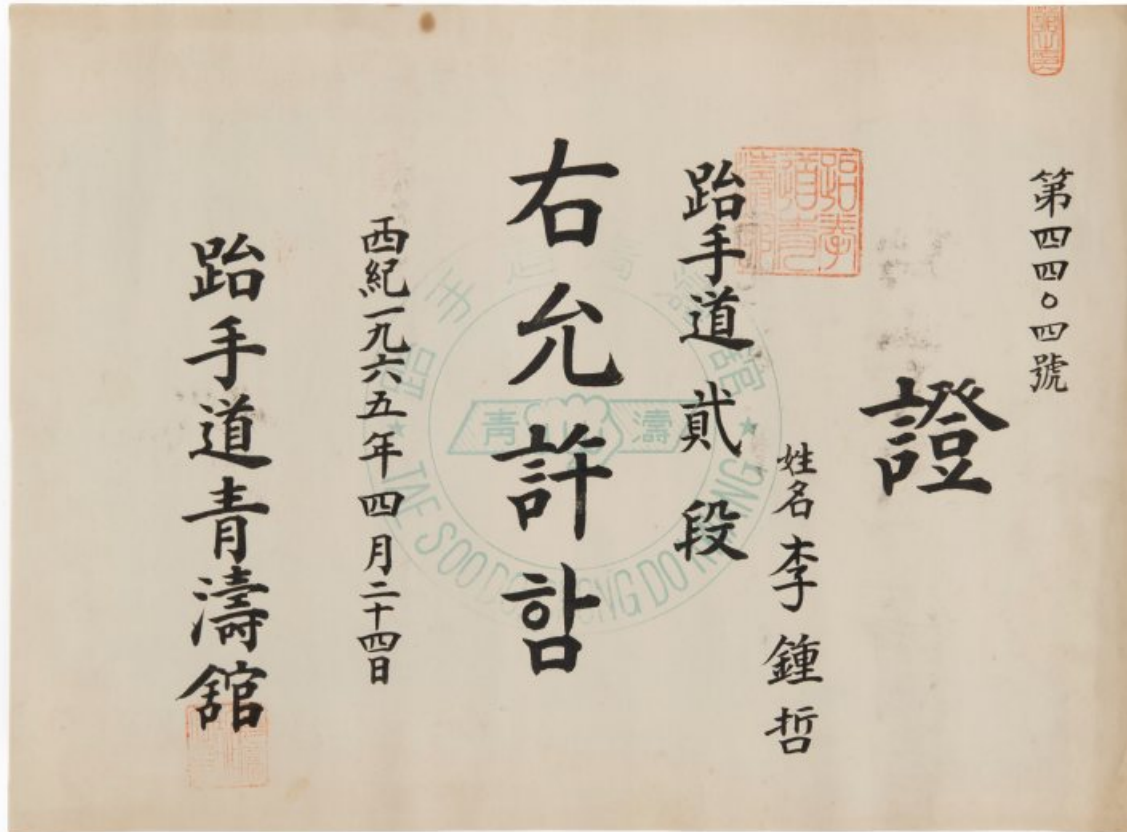
18

청도관* 2단 단증 Chungdokwan Dan Certificate

1965 | 39.5x28.8 | 이종철 기증

1965년에 이종철이 태수도 청도관에서 취득한 2단 단증이다.
단증 중앙부분에 청도관을 상징하는 엠블럼이 그려져있다.

* 이원국은 1944년 서대문구에 청도관靑濤館을 세우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당수도'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청도관은 '푸른 파도'를 의미하며 청년의 기상과 활동력을 상징으로 삼았고, 성실, 창의, 노력을 관훈으로 내세웠다.



19

청도관 초단증 Chungdokwan Dan Certificate

1968 | 21.2x32.5 | 최병호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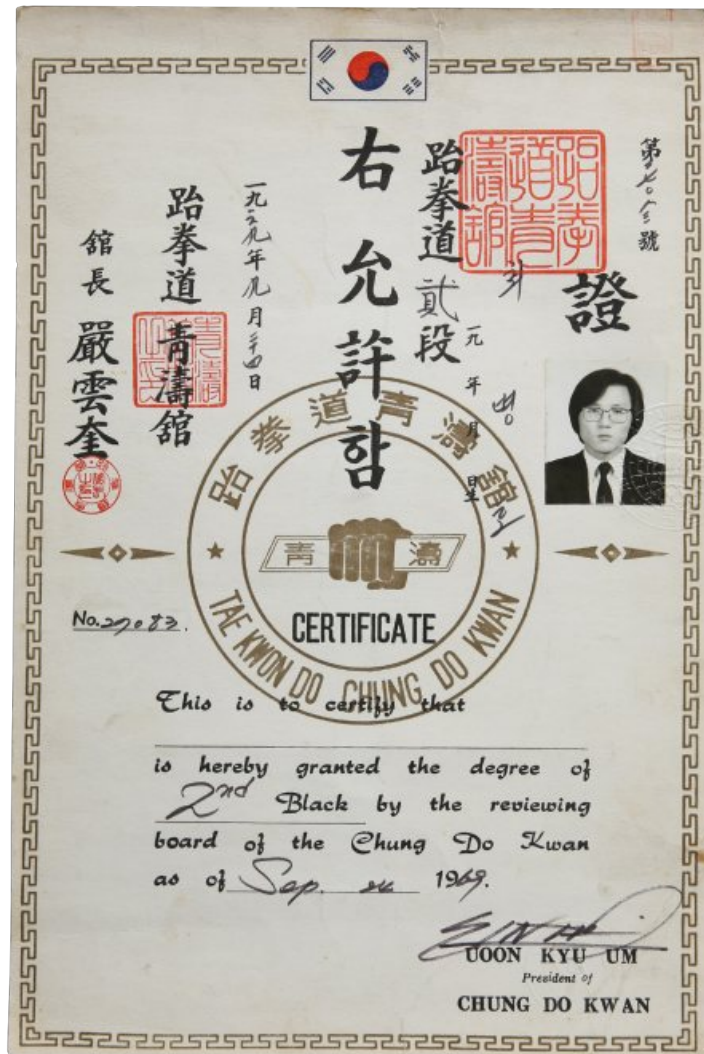
1968년에 최병호가 태권도 청도관에서 취득한 초단증이다. 태수도 청도관에서 태권도 청도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단증도 사진과 영문표기 추가, 세로 형식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도관 2단 단증 Chungdokwan Dan Certificate

1969 | 21.2x32.5 | 최병호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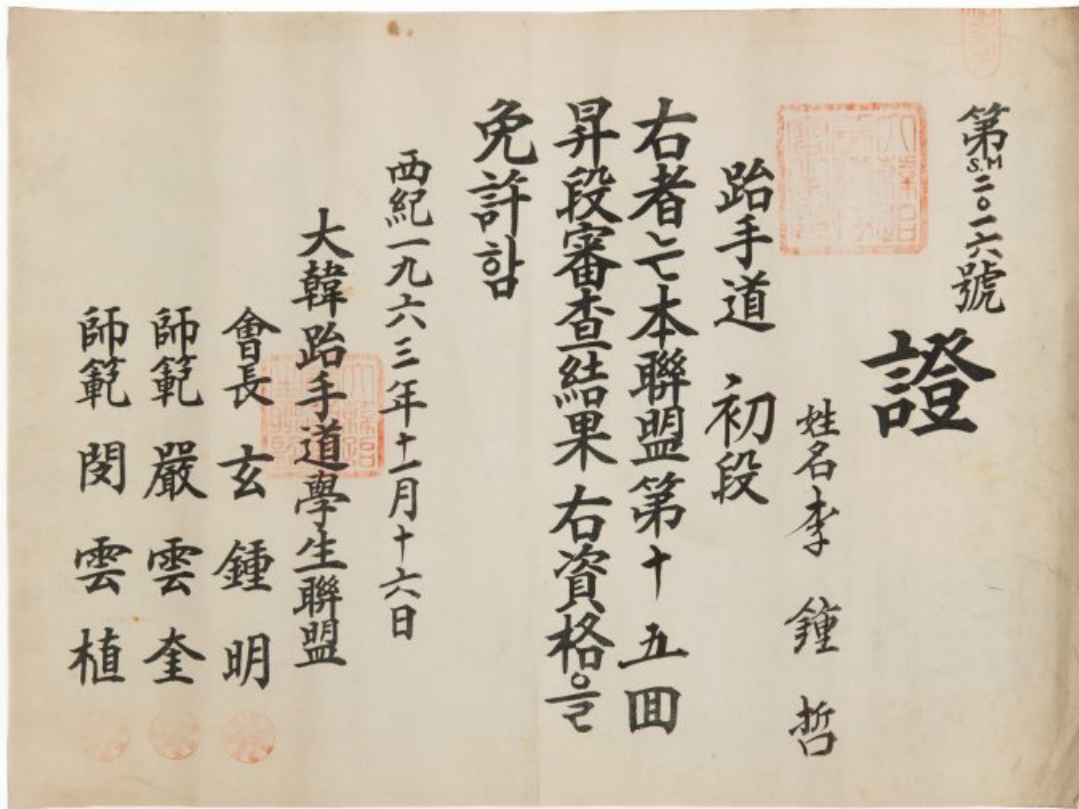
1969년에 최병호가 태권도 청도관에서 취득한 2단 단증이다.



대한태수도학생연맹 초단증 Korea Youth Taesudo Federation Dan Certificate

1963 | 39.5x28.8 | 이종철 기증

1963년에 이종철이 대한태수도학생연맹에서 취득한 초단증이다.



대한태수도협회 5단 단증 Korea Taesudo Association Dan Certificate

1964 | 39.5x27.2 | 조종덕 기증

대한태수도협회에서 발행한 5단 단증이다. 1961년 사회단체 재등록이 시행되자 문교부는 유사단체 통합을 서둘렀다. 이에 대한수박도회, 대한태권도회, 공수도 창무관, 송무관, 강덕원, 한무관 등 대표들을 소집하여 통합회의를 수차례 진행하였다. 1961년 9월에 열린 통합회의의 안건은 협회의

명칭을 정하는 것이었다. 최홍희는 '태권도'를 주장했으나 윤쾌병, 노병직 등은 '공수도'를 고수하겠다고며 반대하였다. 결국 태권도의 '태'자와 공수도의 '수'자를 따서 '태수도'를 표결에 부쳤고, 협회 명칭은 '대한태수도협회'로 결정되었다.



23

대한태수도협회 2단 단증 Korea Taesudo Association Dan Certificate

1965 | 44x32.7 | 이종철 기증

1965년에 이종철이 대한태수도협회에서 취득한 2단 단증이다.



대한태권도협회 4단 단증 Korea Taekwondo Association Dan Certificate

1966 | 43.8x32.7 | 김선동 기증

1966년에 김선동이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취득한 4단 단증이다. 1961년에 창립된 대한태수도협회는 4년만에 대한태권도협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55년 '태권도'라는 명칭이

발표된 지 10년만에 태권도는 공식명칭이 되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협회 명칭은 변경되었지만, 단증의 양식은 대한태수도협회와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대한태권도협회 회원증 Membership Card of Korea Taekwondo Association

1966 | 10.1x6.1 | 김영작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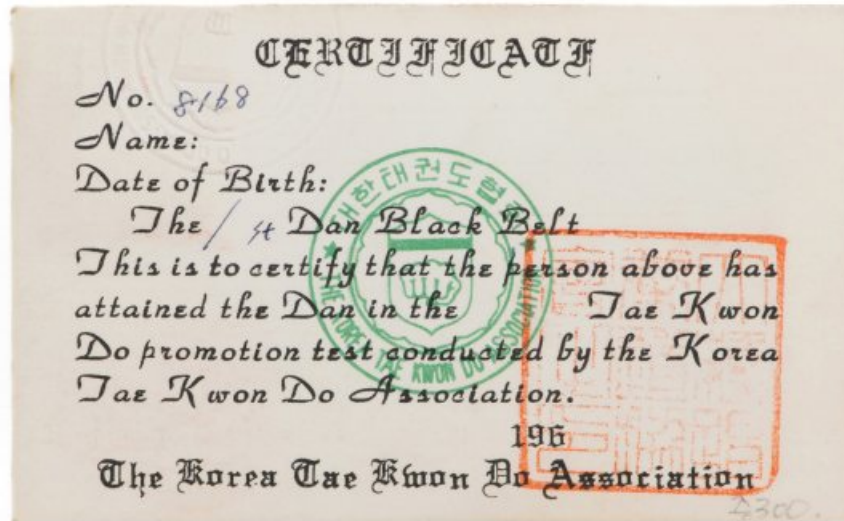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발행한 회원증으로, 회원증은 초단 취득시 단증과 함께 발급되었다.



대한태권도협회 회원증 Membership Card of Korea Taekwondo Association

1967 | 10.3x7 | 박창근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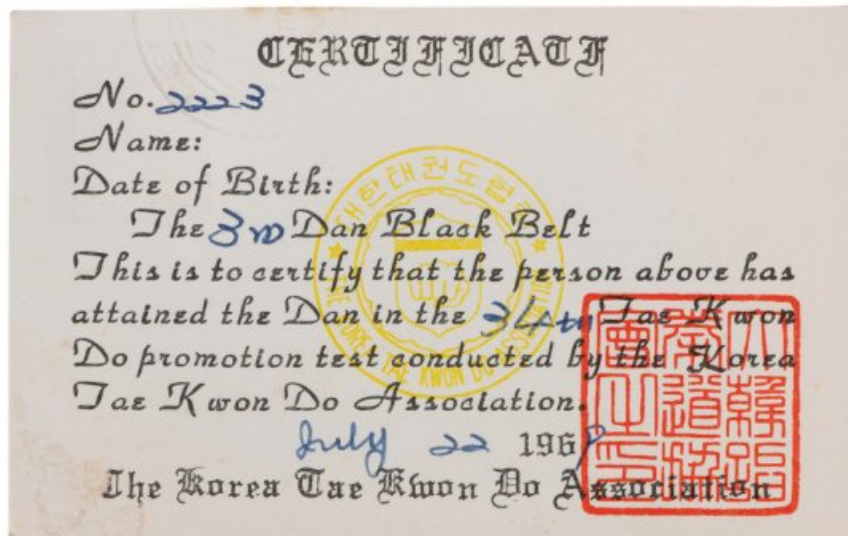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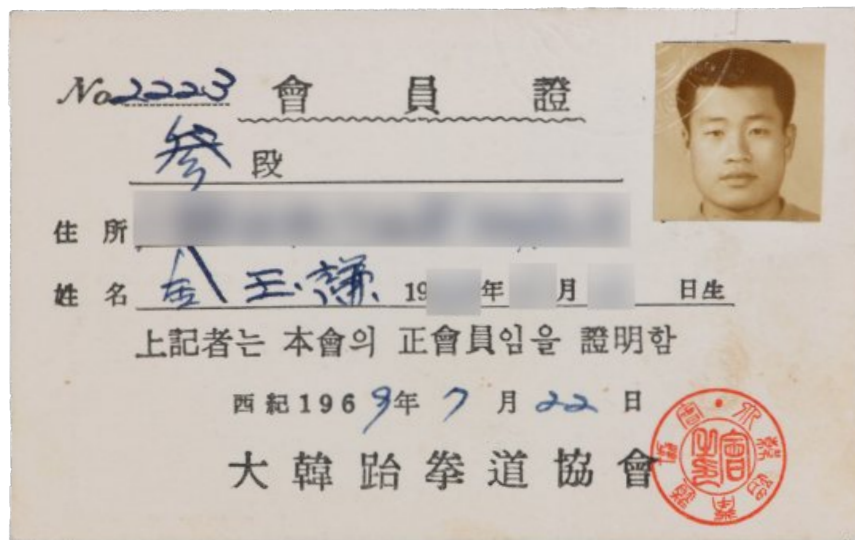
1967년에 박창근이 발급받은 대한태권도협회 회원증이다.



대한태권도협회 회원증 Membership Card of Korea Taekwondo Association

1969 | 9.6x6 | 김영작 기증

1969년에 김옥겸이 발급받은 대한태권도협회 회원증이다.





“고단자이전 완벽한 기술의 소유자이전 간에 어떤 일을
달성하자면 먼저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인내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것을 매진함으로써 소원성취를 할 수 있다.”

최홍희, 「태권도교서(1972)」

PART 2

인(認)

태권도인의 성취

1950-6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경기화가 시작되었다. 1962년 최초로 태권도 경기 규칙이 제정되었으며, 전국체전에서의 정식종목 채택을 시작으로 다양한 태권도 대회들이 개최되었다.

1964년 이후 정규 대회에서 태권도 경기는 주로 단을 기준으로 중기부(1~2단)와 고기부(3단 이상)로 구분하였으며, 다시 체급별(핀~헤비급)로 나누어 시행되었다.

상장, 메달, 트로피 등 각종 대회 관련 기념품을 비롯해 표창장 등 수련을 통해 얻게 된 태권도인의 성취를 담았다.

표창장 Certificate

1960 | 39x26.3 | 조증덕 기증

1960년 권법강무관에서 조증덕에게 수여한 표창장이다.
관 발전과 후진양성에 기여하였으므로 조증덕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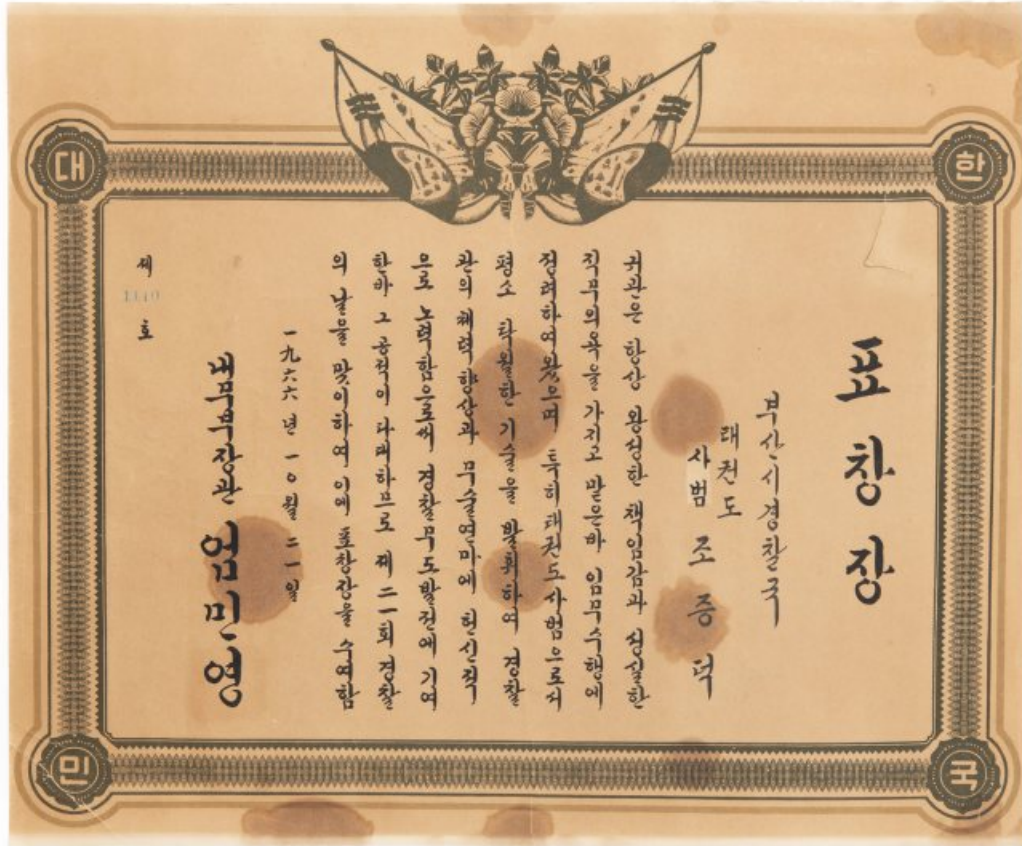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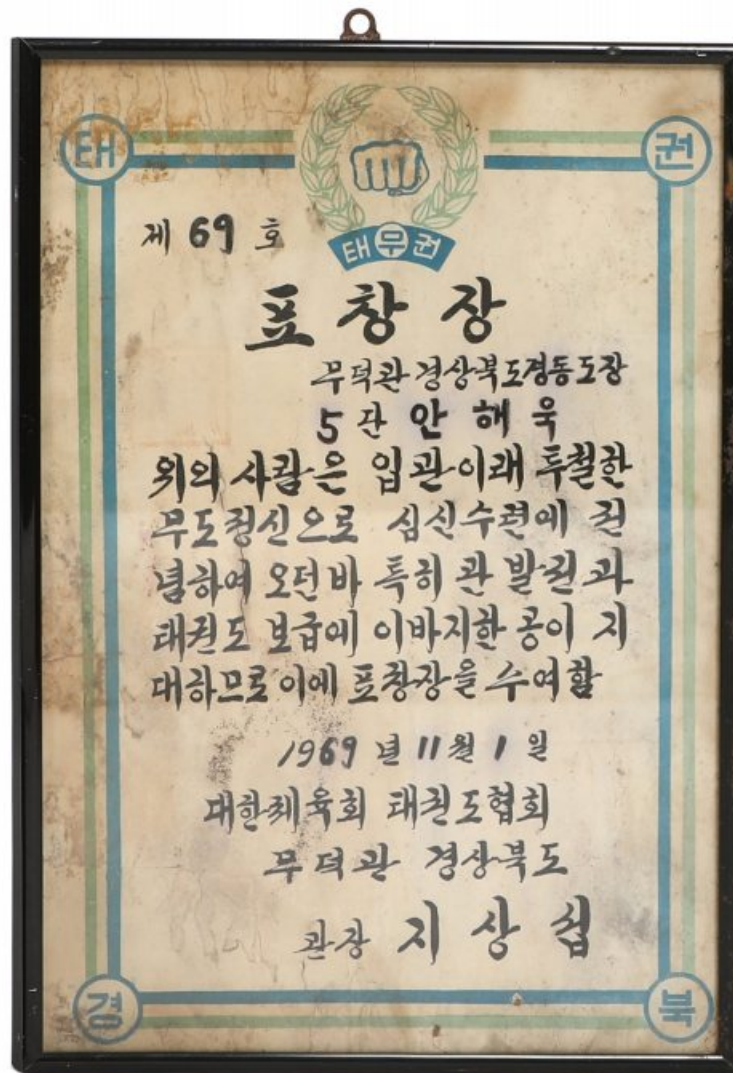
표창장 Certificate

1966 | 42.2x34.5 | 조증덕 기증

1966년 제21회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내무부장관이 조증덕에게 수여한 표창장이다. 경찰무도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하여 표창장을 수여한다는 내용이다.



1969년 무덕관 경상북도 관장 지상섭이 안해욱에게 수여한 표창장이다.



31

제2회 개인선수권대회 메달 Medal from the Individual Championships

1965 | 4.7x5.8 | 최권열 기증

최권열이 1965년 제2회 개인선수권대회에서 획득한 메달이다. 메달 뒷면에 양각된 "전북태수도협회"를 통해 '태권도'란 명칭이 공식 제정된 이후에도 '태수도'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2회 전국신인선수권대회 상장 Award Certificate of Taekwondo Rookies Championships

1966 | 44.5x32.5 | 최권열 기증

최권열이 1966년 제2회 전국신인선수권대회에서 획득한 상장이다. 전국태권도신인선수권대회는 1965년 한국체육관에서 크게 중기부와 고기부로 나뉘어 제1회 대회가 치러졌다.



일본 파견 선수 선발대회* 상장 Award Certificate of the Taekwondo Athlete Selection Contest for Japanese Expedition

1966 | 44.5x32.5 | 최영길 기증

1966년 5월 8일에 열린 일본 파견 선수 선발을 위한 2차 경기에서 중기부 웰터급 1위를 한 최영길에게 수여한 상장이다. 대회는 대한태권도협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협회장 노병직의 이름으로 상장이 수여되었다.

* 1966년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일본 파견 선수 선발 대회의 상장이다. 한성여고 체육관에서 개최된 일본원정선수선발전은 중기부와 고기부로 나뉘 1차전에서 4차(최종)전에 걸쳐 경기를 운영했다. 각 부별로는 핀급·플라이급·밴텀급·페더급·라이트급·웰터급·미들급·헤비급의 체급으로 나뉘어 대회가 개최되었다.



일본 파견 선수 선발대회 상장 Award Certificate of the Taekwondo Athlete Selection Contest for Japanese Expedition

1966 | 38x26.5 | 최영길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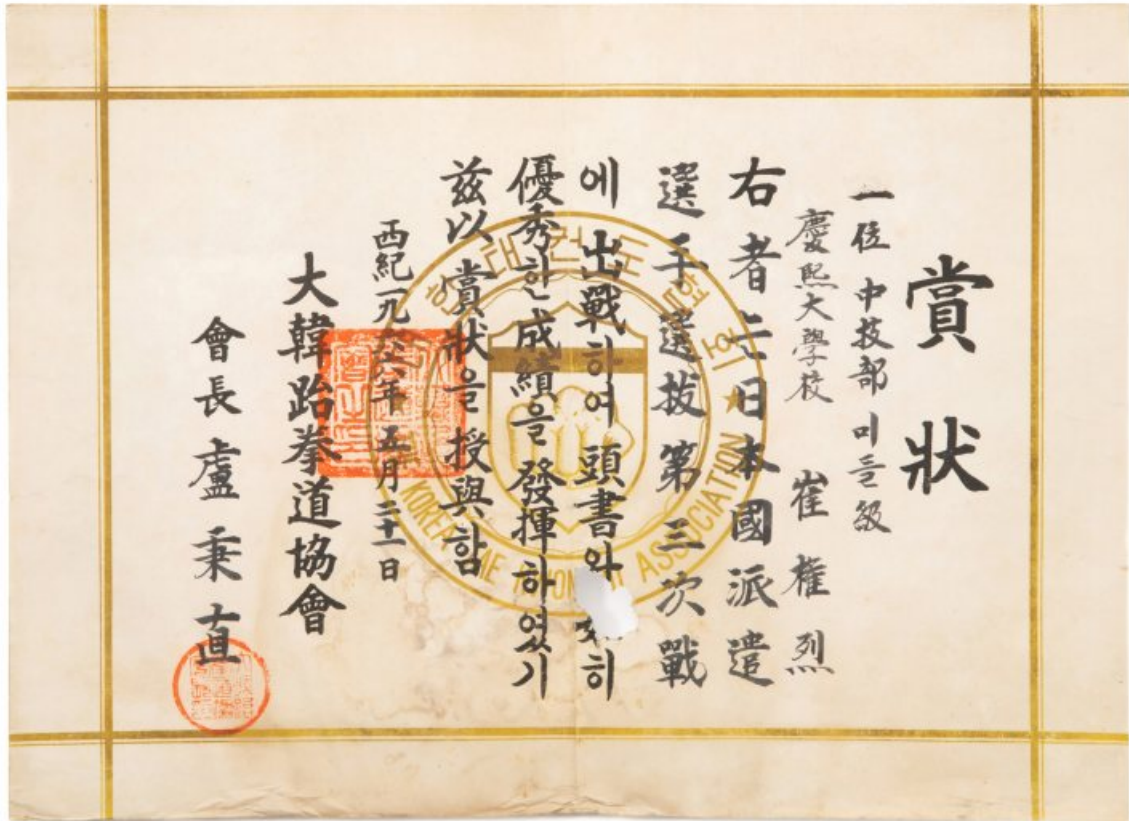
1966년 5월 21일에 열린 일본 파견 선수 선발을 위한 3차 경기에서 중기부 웰터급 1위를 한 최영길에게 수여한 상장이다.



일본 파견 선수 선발대회 상장 Award Certificate of the Taekwondo Athlete Selection Contest for Japanese Expedition

1966 | 44.5x32.5 | 최권열 기증

1966년 5월 21일에 열린 일본 파견 선수 선발을 위한 3차 경기에서 중기부 미들급 1위로 입상한 최권열의 상장이다.



일본 파견 선수 선발대회 상장 Award Certificate of the Taekwondo Athlete Selection Contest for Japanese Expedition

1966 | 44.8x32.8 | 김선동 기증

1966년 5월 21일에 열린 일본 파견 선수 선발을 위한 3차 경기에서 김선동이 고기부 플라이급 2위로 입상하여 받은 상장이다.



37

일본 파견 선수 선발대회 상장 Award Certificate of the Taekwondo Athlete Selection Contest for Japanese Expedition

1966 | 39.5x29.5 | 최영길 기증

1966년 5월 22일 일본 파견 선수 선발을 위한 최종경기에서 중기부 웰터급 1위를 한 최영길에게 수여한 상장이다.



한국우수선수선발대회* 상장 Award Certificate of the Korean Excellent Athlete Selection Contest

1967 | 44.5x32.5 | 최권열 기증

1967년 한국우수선수선발대회 중기부 미들급 1위 상장이다.

* 1960년대에 개최된 한국우수선수선발대회 중 최종경기는 현재의 국가대표선발전과 같은 의미였다. 1960년대 왕성하게 활동했던 최권열이 한국우수선수선발대회에서 획득 후 기증한 메달과 상장들이다.



39

한국우수선수선발대회 메달 Medal from the Korean Excellent Athlete Selection Contest

1967 | 5.3x6 | 최권열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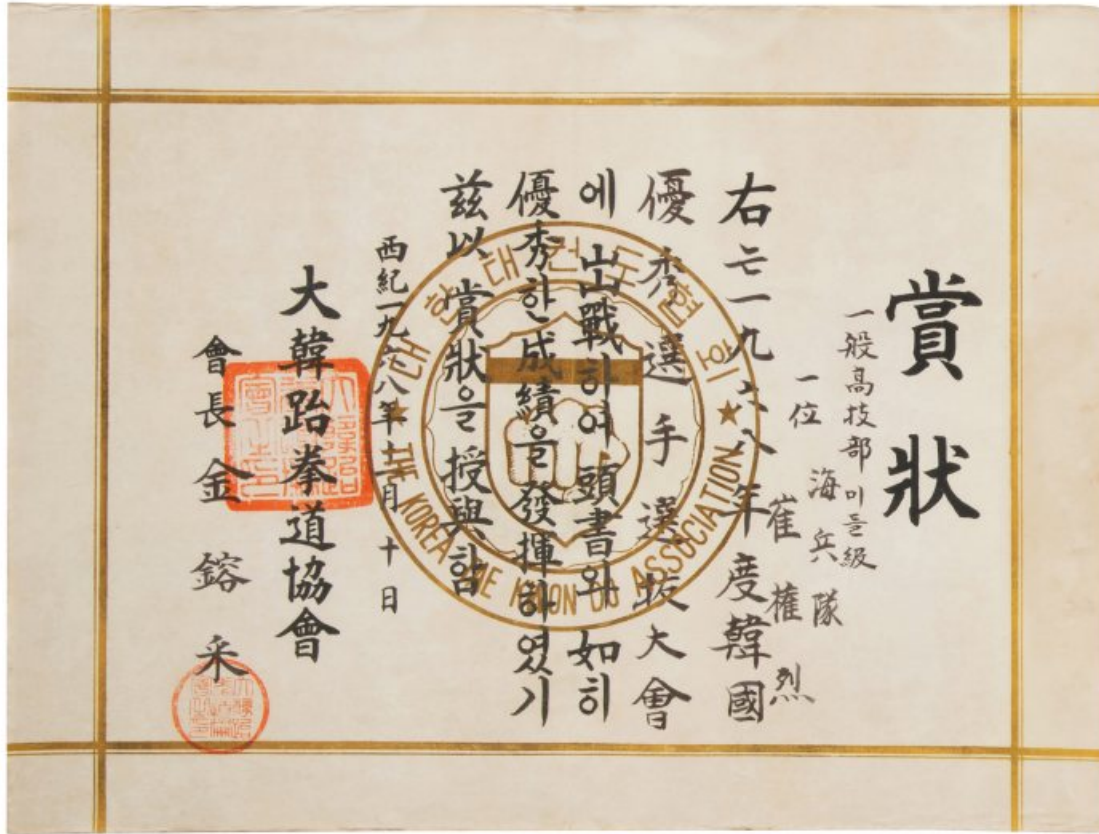
1967년 한국우수선수선발대회에서 획득한 메달이다.



한국우수선수선발대회 상장 Award Certificate of the Korean Excellent Athlete Selection Contest

1968 | 44.5x32.5 | 최권열 기증

1968년도 한국우수선수선발대회 일반 고기부 미들급 1위
상장이다.



41

한국우수선수선발대회 메달 Medal from the Korean Excellent Athlete Selection Contest

1968 | 4.9x5.8 | 최권열 기증

1968년도 한국우수선수선발대회에서 획득한 메달이다.



42

한국우수선수선발대회 메달 Medal from the Korean Excellent Athlete Selection Contest

1969 | 5x6 | 최권열 기증

1969년 한국우수선수선발대회에서 획득한 메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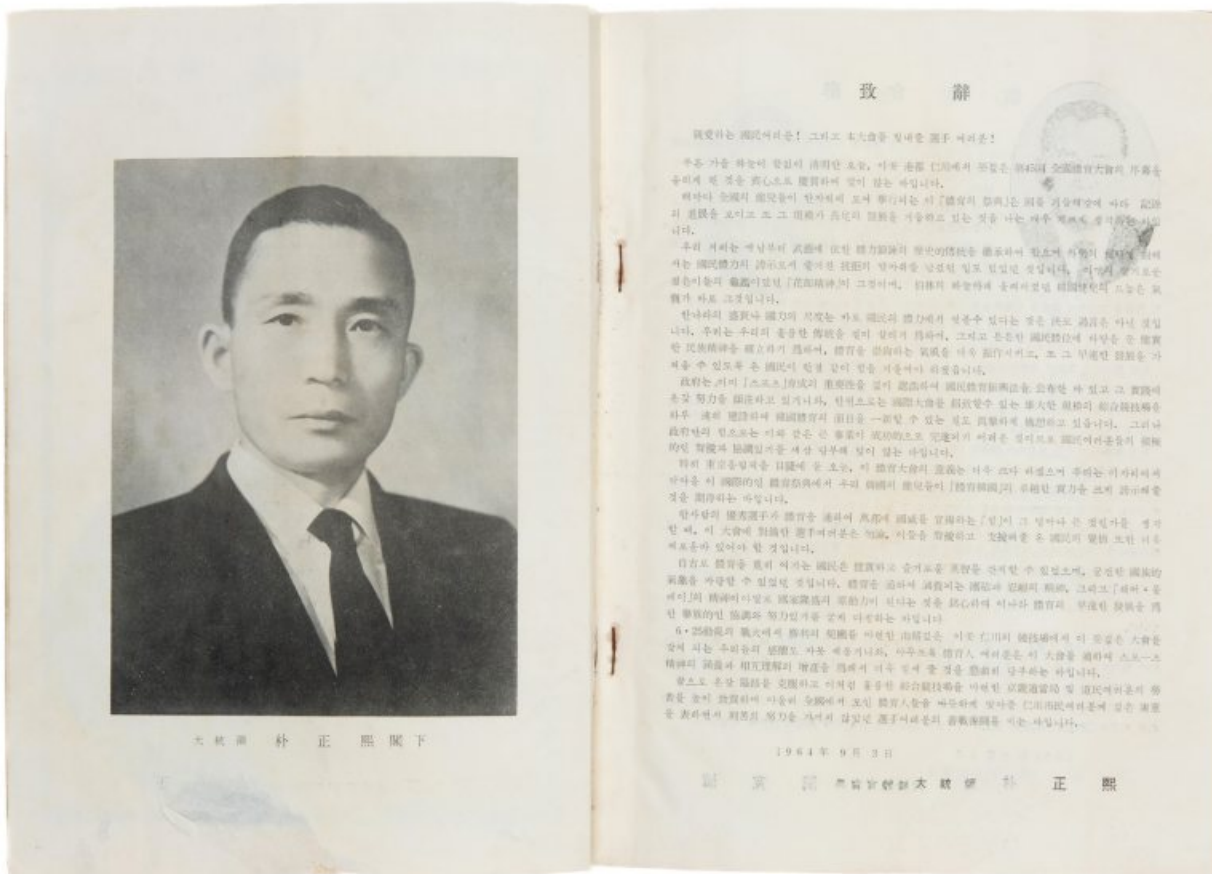


제45회 전국체육대회* 자료집 Booklet for the National Sports Festival

1964 | 18.5x25.6 | 김영선 기증

1964년 9월 3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에서 개최된 제45회 전국체육대회 자료집이다. 책 내용으로는 대통령 치사, 대한체육회장 개회사, 경기도지사 환영사, 전국체육대회규정, 경기심판규정, 대회 임원 등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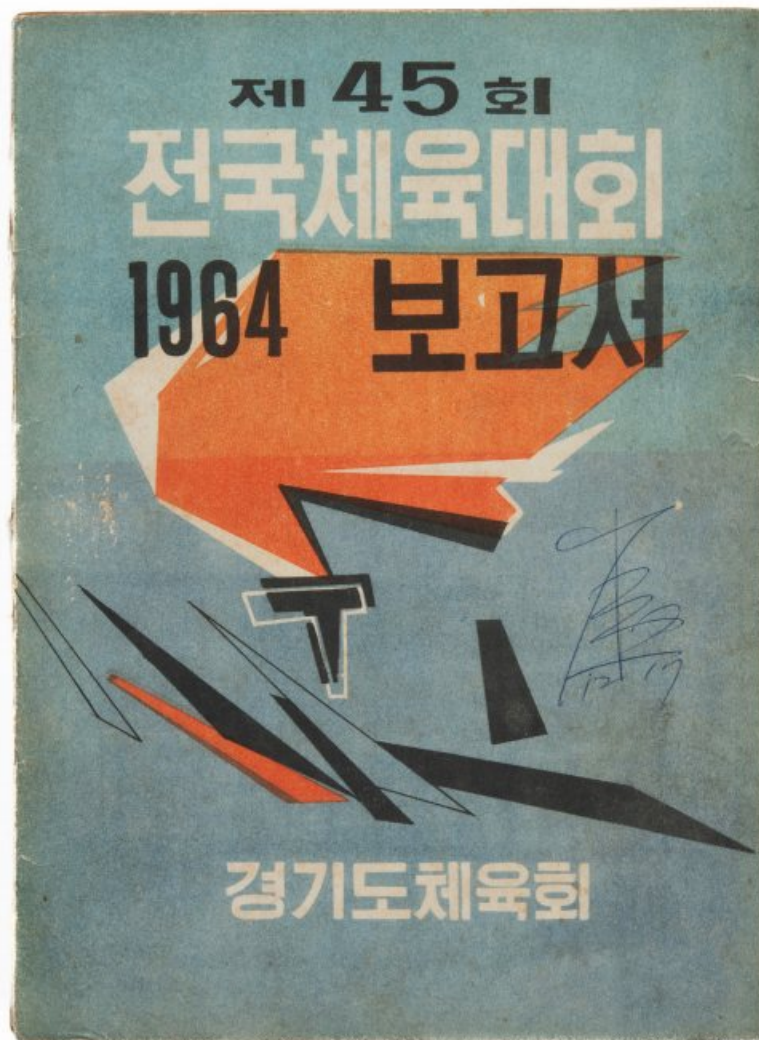
* 전국체육대회는 대한체육회가 전국 각 시·도를 중심으로 우정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하는 종합경기대회이다. 태권도는 1962년 제4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태수도'라는 이름으로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었고, 이듬해 1963년 전주에서 개최된 제44회 전국체육대회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태권도 경기는 크게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뉘고, 다시 중기와 고기, 그리고 체급별로 나누어 경기가 치러졌다.



제45회 전국체육대회 보고서 Report on the National Sports Festival

1964 | 18.5x25.4 | 김영선 기증

제45회 전국체육대회 보고서로, 각 경기 부에 관한 내용과 결산서가 설명되어있다. 이전까지 단체전으로 진행되던 경기는 제45회 전국체육대회부터 개인전으로 변경되었고 플라이급에서 헤비급까지 7체급으로 세분화되어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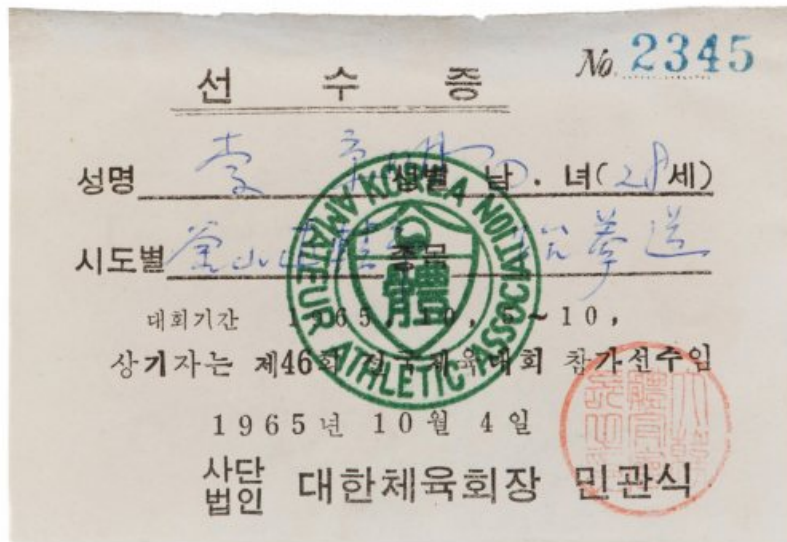


46

제46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선수증 Athlete ID at the 46th National Sports Festival

1965 | 9.3x6.3 | 이경명 기증

전남 광주에서 열린 제46회 전국체육대회에 부산직할시 소속 태권도 선수로 참가한 이경명의 선수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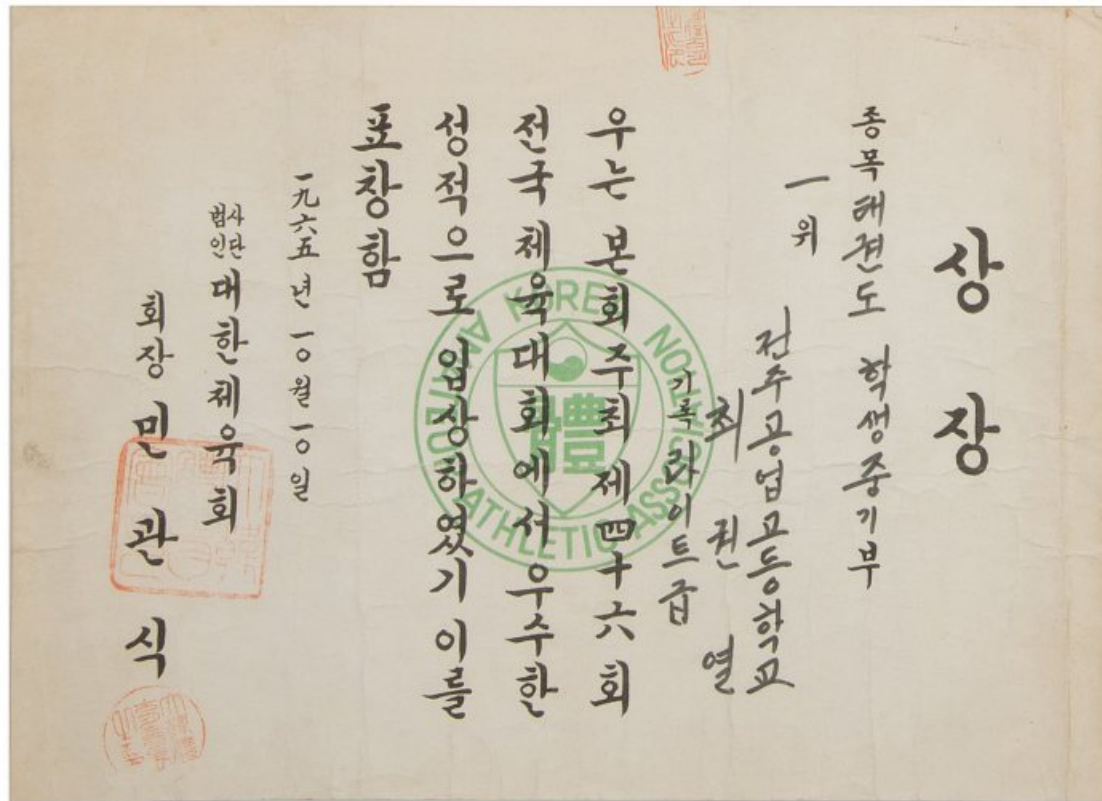


47

제46회 전국체육대회 상장 Award Certificate of the 46th National Sports Festival

1965 | 32x23 | 최권열 기증

제46회 전국체육대회 학생 중기부 라이트급에서 1위를 한 최권열의 상장이다. 종목, 기록순위, 체급, 선수명, 수여날짜 등이 적혀있다. 제46회 전국체육대회부터는 판급이 추가 되어 8체급의 경기로 진행되었다.



48

제46회 전국체육대회 메달 Medal from the 46th National Sports Festival

1965 | 4.7x5.9 | 최권열 기증

최권열이 획득한 제46회 전국체육대회 메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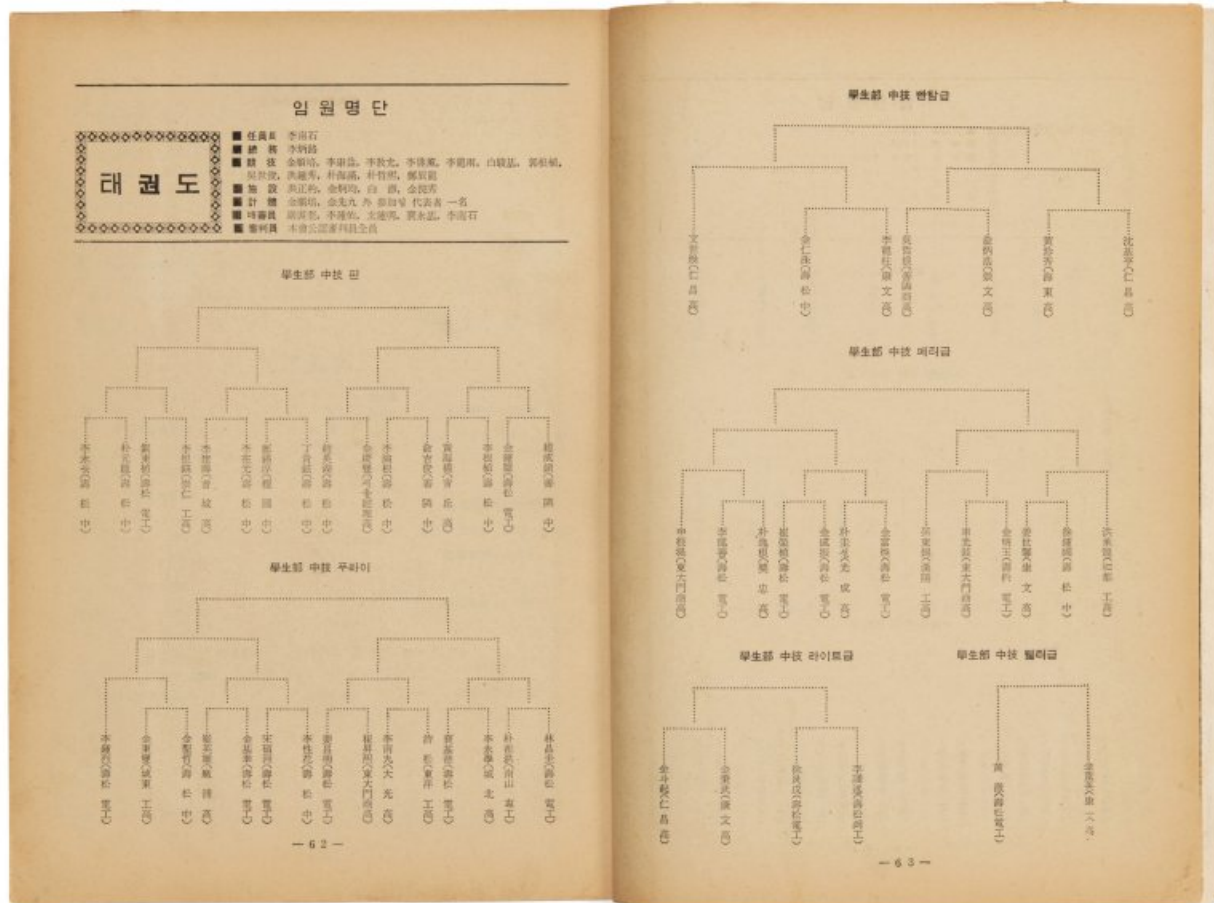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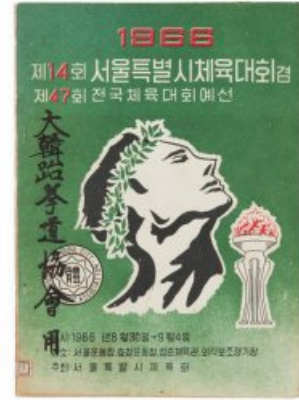


제14회 서울특별시체육대회 겸 제47회 전국체육대회 예선 자료집

Booklet for the National Sports Festival

1966 | 18.4x25.1 | 김영선 기증

1966년 제14회 서울특별시체육대회 겸 제47회 전국체육대회 예선 자료집이다. 스포츠맨 강령, 개회식 및 개회식순, 참가선수 집계표, 대회 임원, 각 종목별 안내 등이 설명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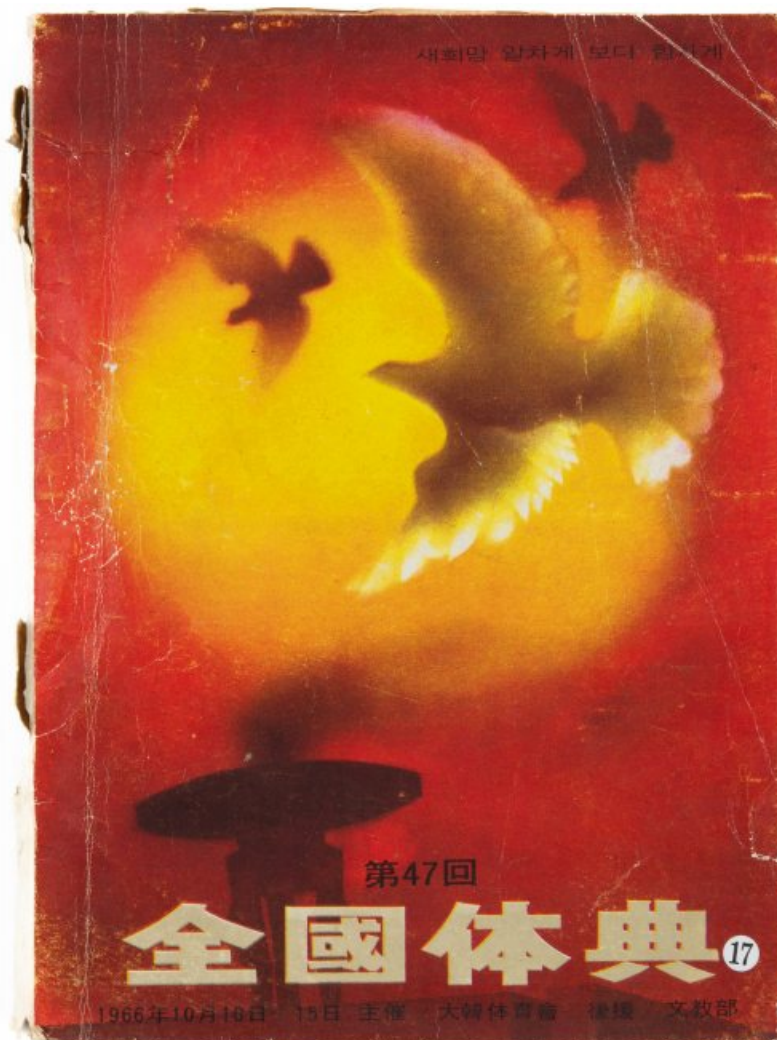


50

제47회 전국체육대회 자료집 Booklet for the National Sports Festival

1966 | 18.5x25.7 | 김영선 기증

1966년 서울에서 열린 제47회 전국체육대회 자료집이다.



51

제47회 전국체육대회 메달 Medal from the 47th National Sports Festival

1966 | 6x7 | 최권열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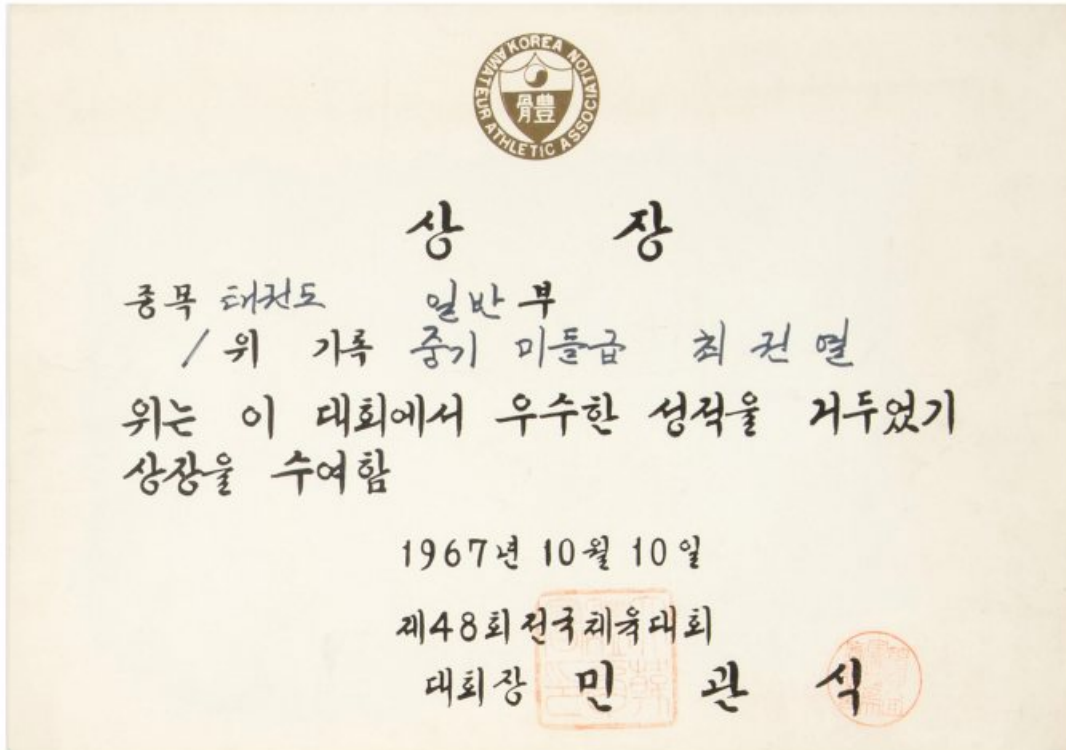
최권열이 획득한 제47회 전국체육대회 메달이다.



제48회 전국체육대회 상장 Award Certificate of the 48th National Sports Festival

1967 | 33x23.6 | 최권열 기증

1967년 서울에서 열린 제48회 전국체육대회 태권도 일반 중기부 미들급에서 1위를 한 최권열의 상장이다.



53

제48회 전국체육대회 메달 Medal from the 48th National Sports Festival

1967 | 6x6.7 | 최권열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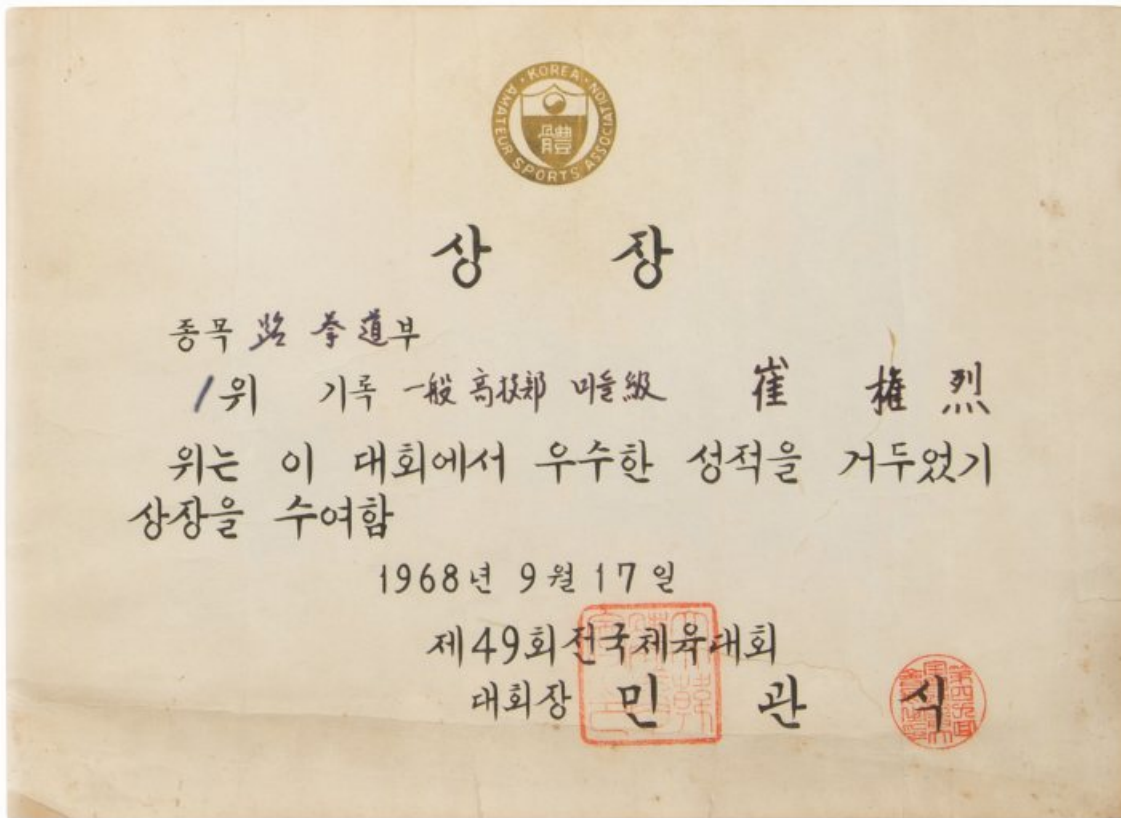
최권열이 획득한 제48회 전국체육대회 메달이다.



제49회 전국체육대회 상장 Award Certificate of the 49th National Sports Festival

1968 | 35.5x26.5 | 최권열 기증

1968년 서울에서 열린 제4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태권도 일반 고기부 미들급 1위를 한 최권열의 상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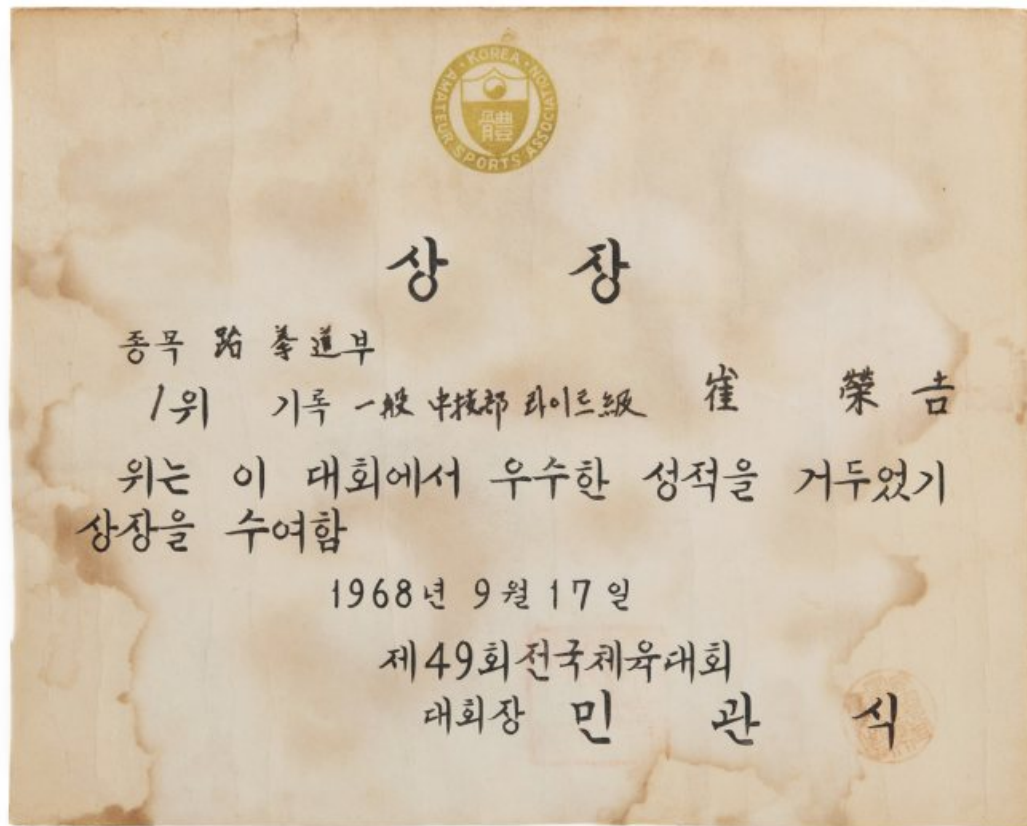


55

제49회 전국체육대회 상장 Award Certificate of the 49th National Sports Festival

1968 | 35.5x26.5 | 최영길 기증

1968년 제4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태권도 일반 중기부
라이트급 1위를 한 최영길의 상장이다.



56

제49회 전국체육대회 메달 Medal from the 49th National Sports Festival

1968 | 4.8x5.5 | 최권열 기증

최권열이 획득한 제49회 전국체육대회 메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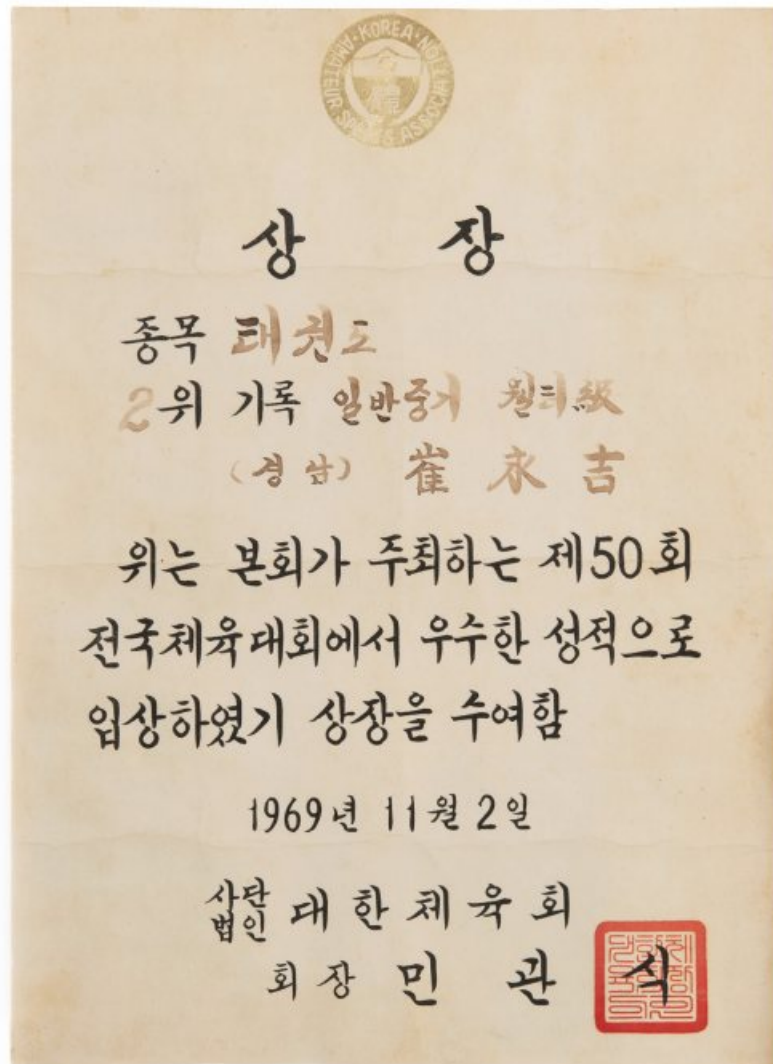


57

제50회 전국체육대회 상장 Award Certificate of the 50th National Sports Festival

1969 | 24.5x33.3 | 최영길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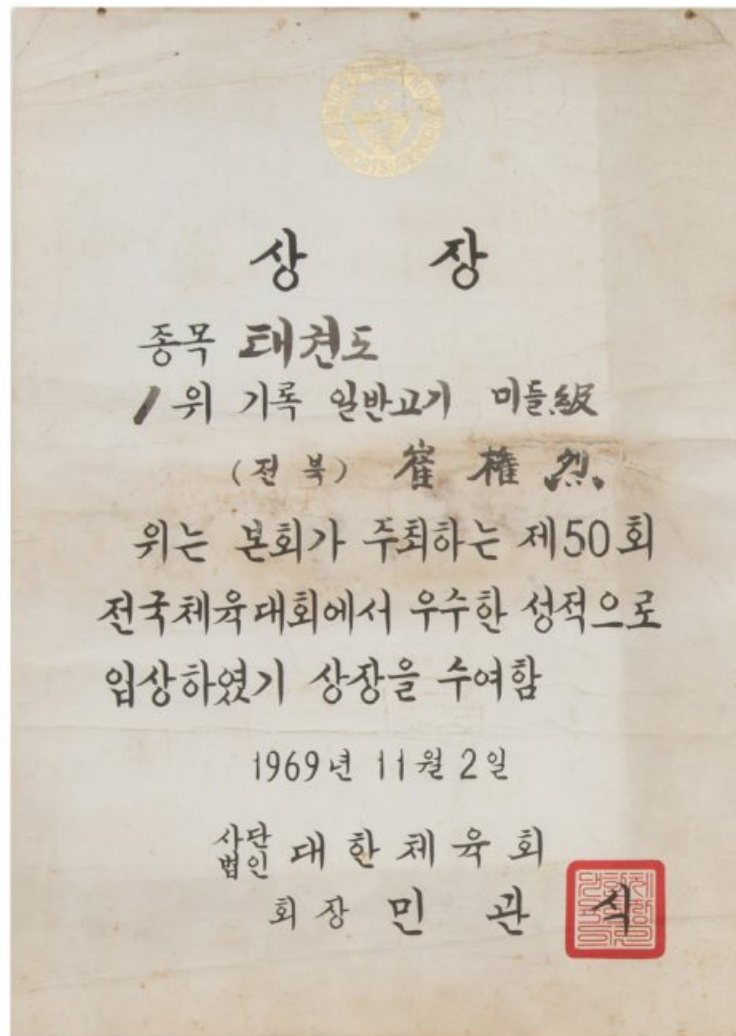
1969년 서울에서 열린 제5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태권도 일반 중기부 웰터급 2위를 한 최영길의 상장이다.



제50회 전국체육대회 상장 Award Certificate of the 50th National Sports Festival

1969 | 25.5x36 | 최권열 기증

제50회 전국체육대회 태권도 일반 고기부 미들급 1위를 한 최권열의 상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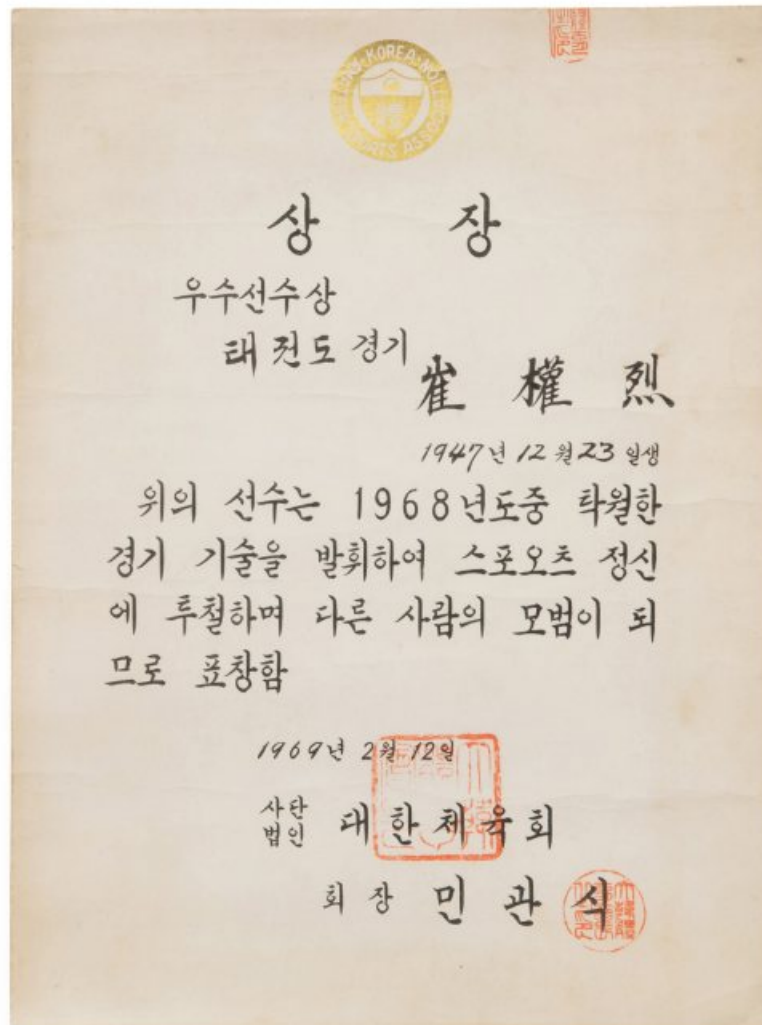


제50회 전국체육대회 상장 Award Certificate of the 50th National Sports Festival

1969 | 25.5x36 | 최권열 기증

제50회 전국체육대회 태권도 경기의 우수선수 상장이다. 최권열은 전국체육대회에서 5년 연속으로 금메달을 땀다. 특히 66년부터 69년까지는 일반 고기부 미들급에서 우승을

차지하였는데, 동일체급에서의 연속 우승은 전국체육대회 전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록이다.



60

제50회 전국체육대회 메달 Medal from the 50th National Sports Festival

1969 | 5x6 | 최권열 기증

최권열이 획득한 제50회 전국체육대회 메달이다.



61

제50회 전국체육대회 기념우표 Commemorative Stamp for the 50th National Sports Festival

1969 | 3.7x2.6 |

1969년 제50회 전국체육대회 기념으로 발행된 우표로 태권도 경기 모습이 인쇄되어 있다. 전국체육대회 기념우표와 기념담배는 제50회 대회에 처음 발매되었다.



62

전라북도 체육상 메달 Medal from the Jeollabuk-do Sport Awards

1965 | 3.7x4.5 | 최권열 기증

1965년 전라북도체육회에서 수여한 체육상 메달으로, 한 해 동안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 수여한 메달이다. 당시 활발하게 활동하며 뛰어난 기량을 보인 최권열이 수상했다.



63

전라북도 체육상 트로피 Trophy from the Jeollabuk-do Sport Awards Awards

1969 | 15.2x46 | 최권열 기증

전라북도체육회에서 매년 그 해에 활발히 활동한 전라북도 출신 선수에게 수여한 트로피이다. 현재도 매해 연말에 각 부문별로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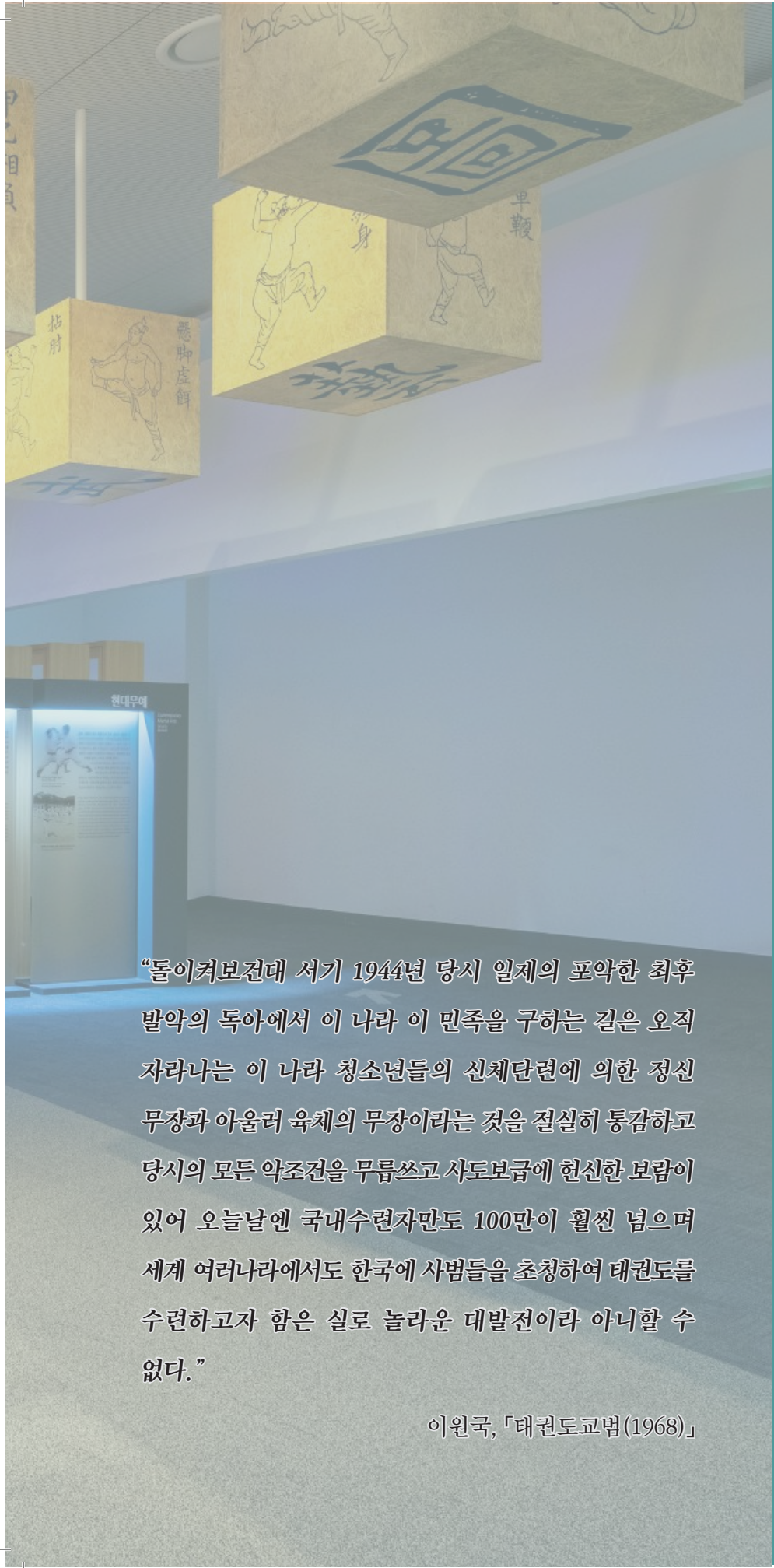
하단에 "1969년도 전라북도 체육상"이 음각되어 있다.



"1969년도 전라북도체육상

1969. 12. 23

전라북도체육회"



“돌이켜보전대 서기 1944년 당시 일제의 포악한 최후 발악의 독아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하는 길은 오직 자라나는 이 나라 청소년들의 신체단련에 의한 정신 무장과 아울러 육체의 무장이라는 것을 절실히 통감하고 당시의 모든 악조건을 무릅쓰고 사도보급에 헌신한 보람이 있어 오늘날엔 국내수련자만도 100만이 훨씬 넘으며 세계 여러나라에서도 한국에 사범들을 초청하여 태권도를 수련하고자 함은 실로 놀라운 대발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원국, 「태권도교범(1968)」

PART 3

지(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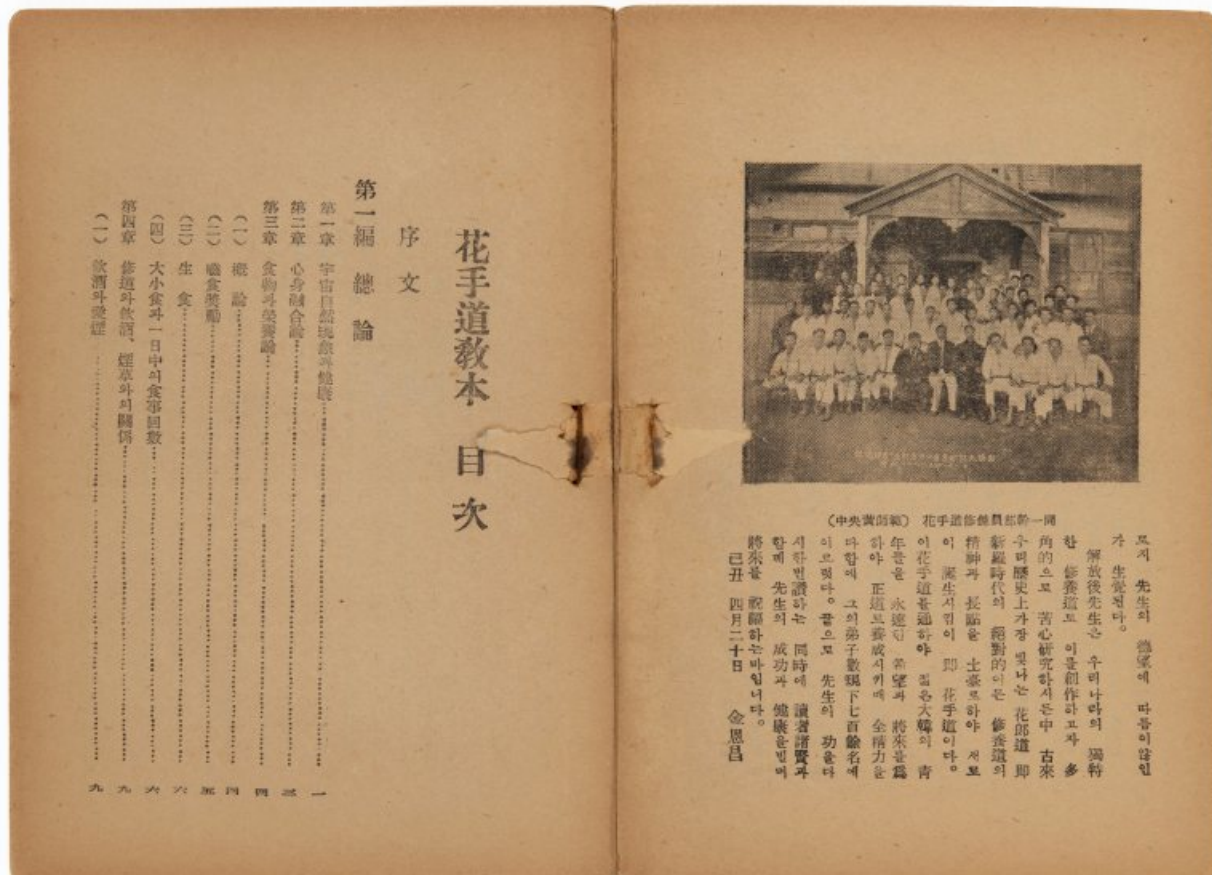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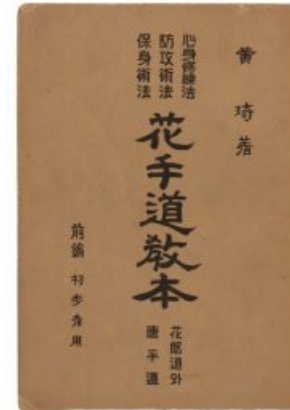
태권도인의 가르침

태권도인은 자기 자신의 수련을 통해 경지에 도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태권도의 보급과 후학양성에도 힘을 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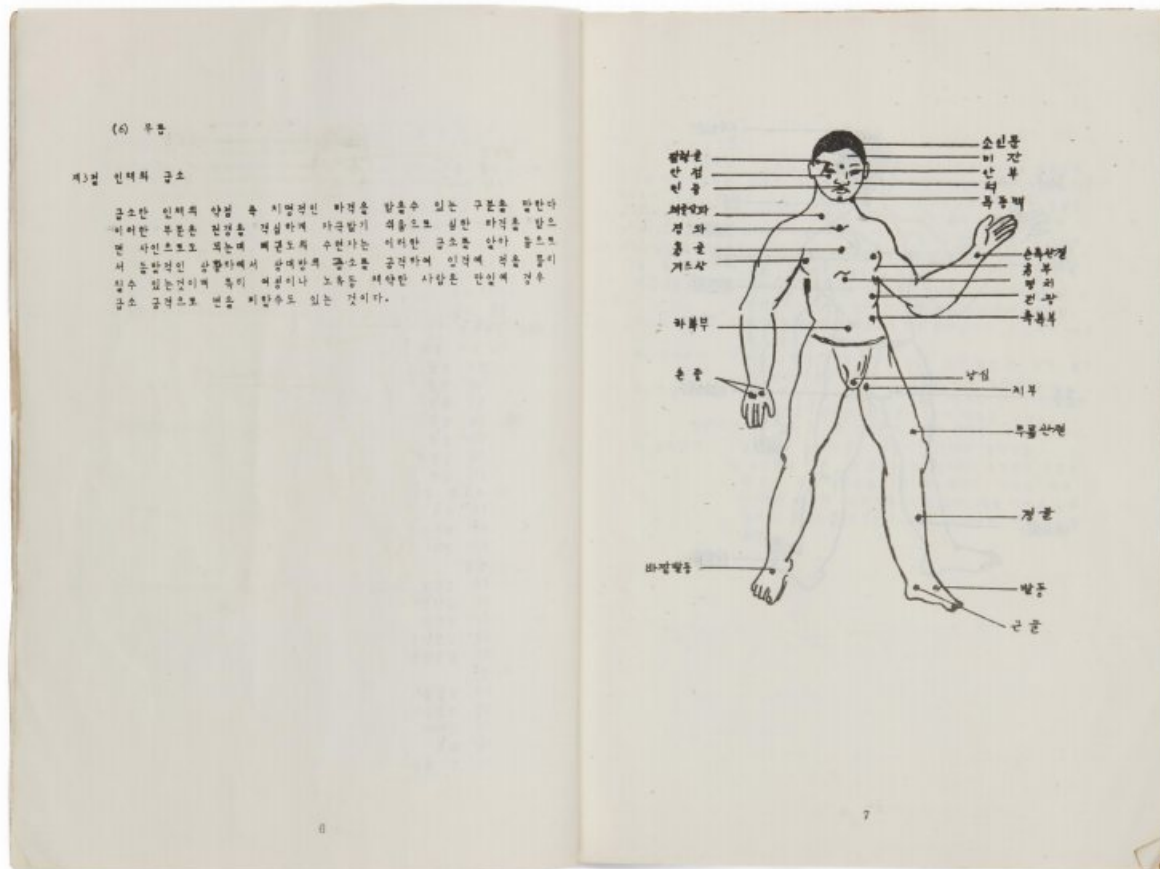
특히 월남에 파견된 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은 해외 태권도 보급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 1962년 12월 남태희 소령을 비롯한 4명의 태권도교관단의 파견을 시작으로 1964년부터 1973년 한국군 철군까지 월남 태권도교관단은 베트남인들의 체력연마와 반공정신 함양 등을 목표로 활동하였다.

태권도 정신과 기술을 담은 교본과 월남 태권도교관단 관련 자료 등을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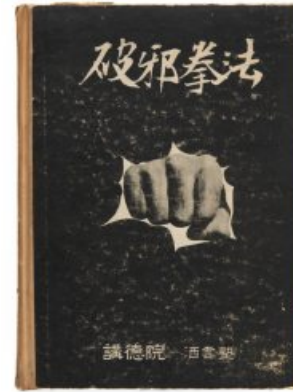
1949년 황기가 저술한 교본으로 조선문화교육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심신수련법, 방공술법, 호신술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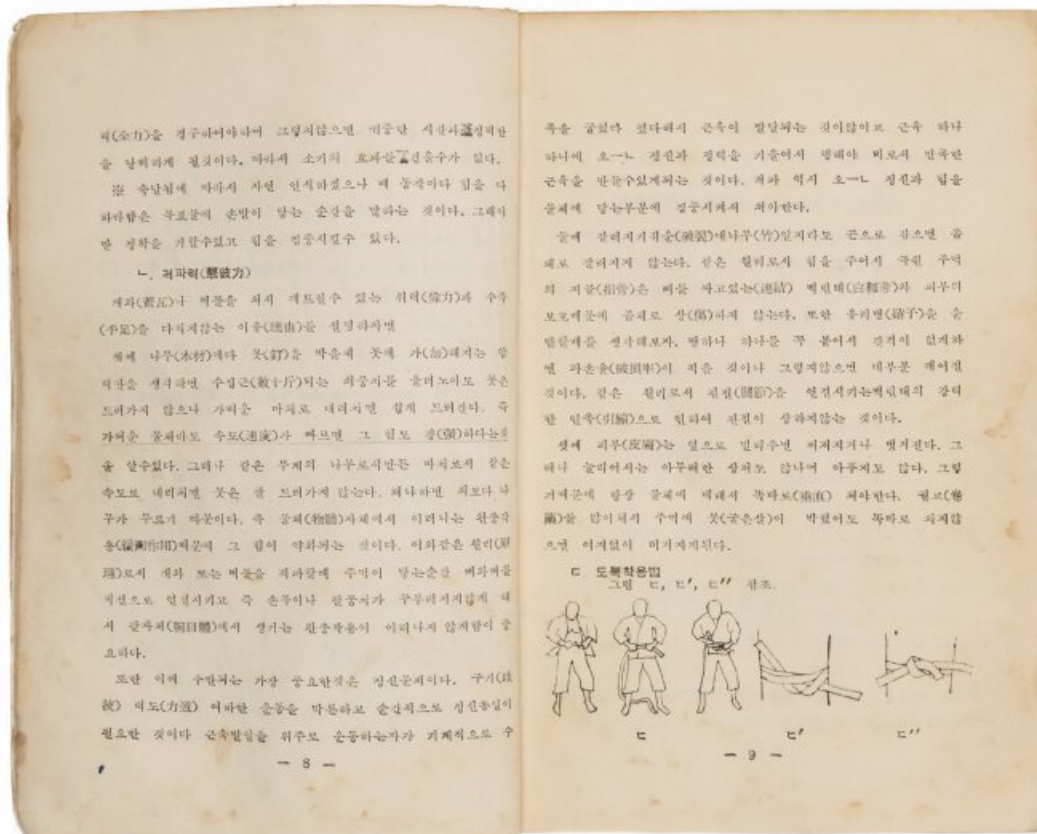
육군보병학교에서 발행된 태권도 교본으로 태권도 용어 정의 및 설명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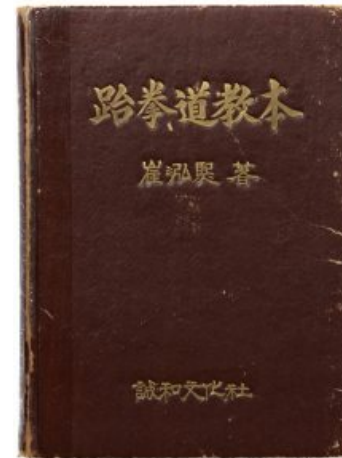
1958년 발행된 파사권법은 오키나와 가라테의 카타 이외에 YMCA(중앙기독교청년회) 권법부에서 수련했던 기본형 1~5절과 정공형 1절이 포함되어 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사용했던 태권도 교본으로 1959년 출판되었다. 태권도 동작에 대한 내용과 그림 등이 담겨있다.



1960년 최흥희가 저술한 교본으로 크게 태권도의 유래와 가치를 서술한 총론과 태권도 기술을 서술한 부분으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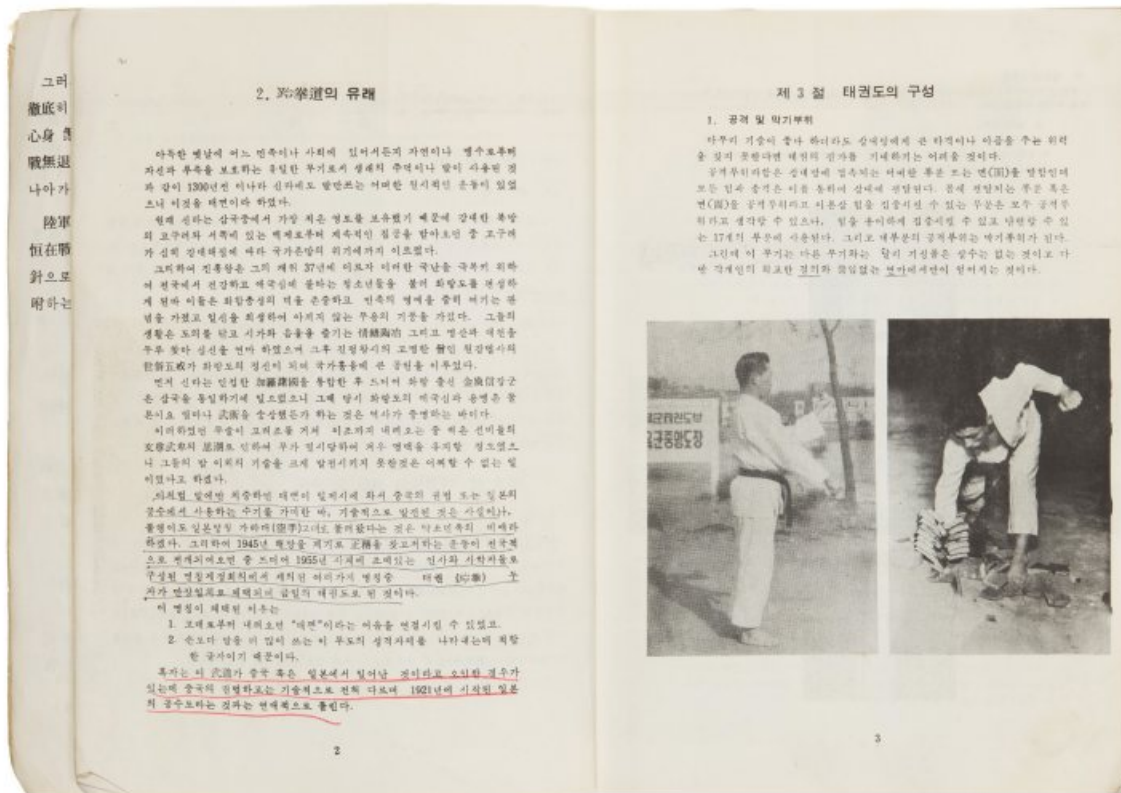


大統領 序文

現下 國際情勢가 緊迫의 度를 加하는 한편 國內을 도리어 모진 데 東邦禮儀之國이다 하는 이 나라의 道德은 거의 땅에 떨어져 가며 國民의 體格이 날로 弱화되어가는 이때 禮儀를 尊重하여 一躬當千하는 氣魄과 威力를 자랑하는 跆拳道가 少將 崔泓熙 少將의 꾸준한 研究로써 이제 完全의 體系化 되었고 또한 科學的으로 細分되어 發刊되는 이 教本에 序하게 된을 기뻐하는 바이다.

本來 이 武道는 일찍이 우리의 民族武藝로서 널리 알려져 오든마 李朝末에 이르러 "文尊武卑"라는 그릇된 思想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等閑視되어 日帝時에는 이것이 마치 그들의 武道인것 처럼 誤認되어 왔던것인데 解放後 다시 活氣를 띠고 널리 發展을 이룩하고 있음은 마치 枯木에 生花와 같았다. 歷史가 證明하는 바와같이 自古로 武를 崇尙하는 나라는 興旺코, 그렇지 못한 나라는 亡한 例가 許多였는데, 말년에 崔少將은 多年間 軍務의 勞를 다스리 斯道 普及에 全力을 다한 結果 一線將兵으로 부터 後方國民에 이르기 까지 普及化 되고 있다라니 이는 國家의 앞날을 爲하여 虛實스러운 일이라 아닐수 없다. 며지나 崔少將은 從前까지 區區客各으로 呼稱되어 오던 名稱과 雨後竹筍之格인 諸流派를 統合함에 힘쓴 功으로 그의 結實을 몇개 필경은 斯道發展에 劃期的인 快事라 하겠고 客년에는 國家跆拳道協會를 引率하여 東南亞 諸國을 巡訪 演武함으로써 斯道가 우리의 固有武道임을 認識시킨 同時에 妙法과 威力으로 그의 國民들을 整頓시켰다 하며 最近에는 美國에까지 數個 支部를 設置하였다 하니 이 또한 國威 宣揚에 훌륭한 일이라 하겠다. 故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우리의

육군본부에서 사용된 태권도 교본으로 1966년에 발행되었다. 태권도 용어 정의와 설명, 사진, 그림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 당시 군대에서도 태권도 수련을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
徹底히
心身俱
戰無退
나아가
陸軍
恒在精
銳으로
附하는

2. 태권도의 유래

아득한 옛날에 어느 민족이나 사치에 있어서는지 가련이나 병주로부터
자신과 후속을 보호하는 유일한 무기로써 상대적 중력이나 발이 사용된 것
과 같이 1300년경 이나와 신라에도 발판은 어떤 형식적인 종류가 있었
으나 이것을 태권이라고 하였다.

원래 상하는 삼국중에서 가장 처음 형태를 보유했던 예문에 강대한 육상
의 요구에의 시책이 있는 때로부터 계속적인 정장을 받아오던 중 고구려
가 삼국 중 태권과정에 여러 국가중심의 위기에까지 이르렀다.

그러하여 전통상은 그의 제위 37년에 이르자 이러한 국난을 극복의 위박
이 전국에서 전강하고 제국심에 몰락한 장소년들을 불의 화방도를 면상하
게 원하 이들은 최합중성의 덕을 존중하고 전국의 영예를 장히 지키는 용
념을 가졌고 잊음을 희생하여 아끼지 않는 무용의 기상을 보였다. 그들의
생활은 도리를 닦고 시가와 음율을 즐기는 禮樂(禮樂) 그리고 영산과 역민을
무우 뜻이 상신을 전하 하였으며 그후 진정상시의 고명한 韓인 원정상시의
한(韓)이 화안으로 정신이 되어 국가를통해 온 공헌을 이루었다.

먼저 신라는 인정한 加羅(羅)를 통합한 후 스러져 파멸 중인 高麗(高麗)는
은 삼국을 통일하게 되었고 그 때 당시 화안도의 제국심과 영명중 불
문으로 일어나 武術을 숭상했는지 하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다.

이러하였던 무술이 고려로 옮겨 이르러의 내외로는 중 계층 선비들의
모방(模倣)의 武術으로 인하여 무가 집안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할 정도였스
나 그들의 남 이의지 기술을 크게 발전시키지 못한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
이었다고 하였다.

외침의 앞날을 쳐승하던 태만이 일제시대 와서 중립의 원형 또는 일부의
중립의 사용하는 무기를 가진 바, 기술적으로 발전한 것은 신라이나,
불명어도 일부일지 가라(高麗)고도 불려왔다는 것은 역사학의 비례라
하였다. 그러하여 1945년 해방을 겪고도 高麗를 잊고지키는 중들이 전라북
으로 귀계(귀계)하면 중 드디어 1965년 지금의 태권도는 인가와 신라(新羅)로
무술의 명칭(名칭)을 세치던 여러가지 명칭중 태권(太極) 후
자가 명칭이 채택된 이유는

1. 고대로부터 내외로인 "태권"이라는 이름을 변경시킬 수 있었고.
2. 손으로 칼을 비 없이 쓰는 이 무도의 성격(性格)을 나타내는데 적당
한 글자이기 때문이다.

특자는 이 武術가 중립 혹은 일부에서 일어난 것(태권)으로 인하여 경구가
있는데 중립의 명칭(名칭)은 기술적으로 전혀 다르다. 1921년에 기존의 일본
의 글자(文字)를 쓰는 것은 현재적으로 불린다.

제 3 절 태권도의 구성

1. 공격 및 방어법

타투기 기술이 잘나 뛰더라도 상대에게 큰 타격이나 아픔을 주는 위력
을 갖지 못한다면 태권의 가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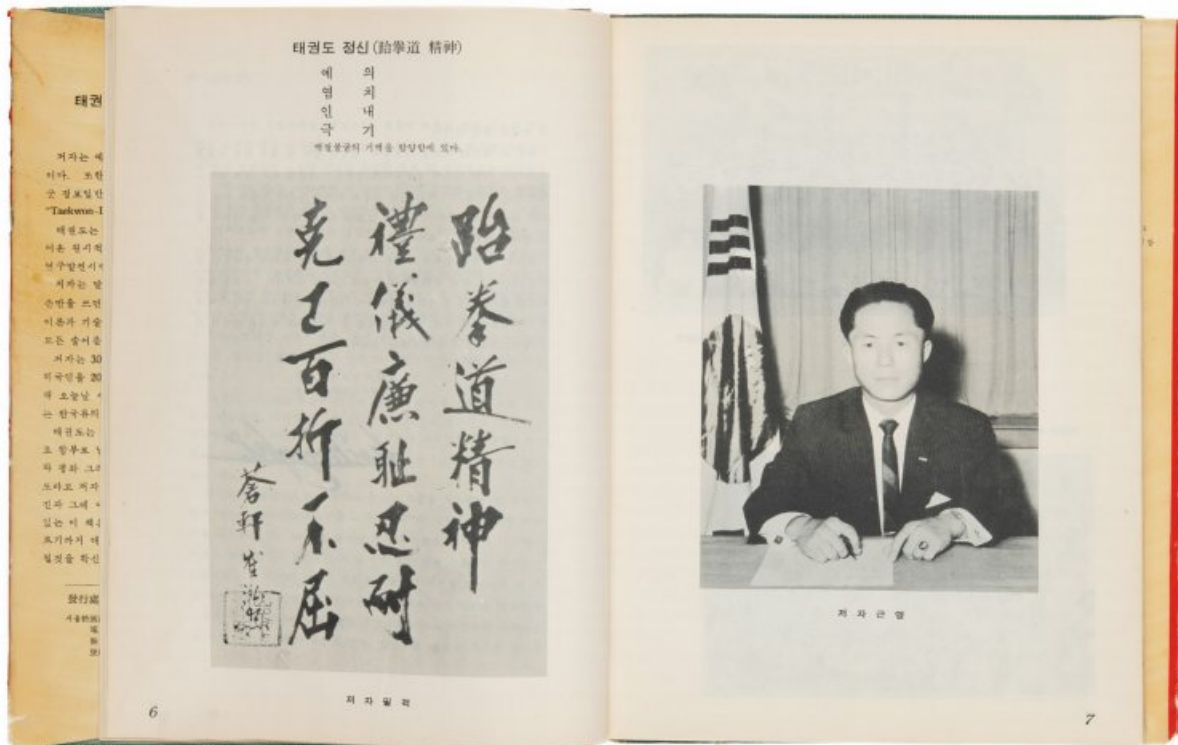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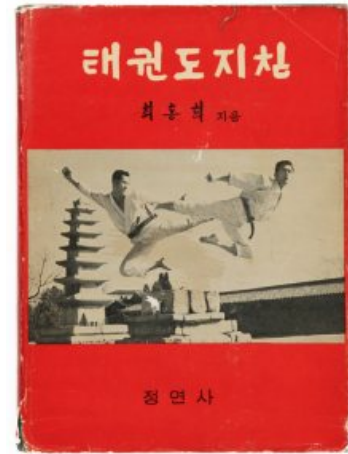
공격(공격)이란 상대에게 임하는 어떠한 후속 또는 변(變)을 일으켜서
또는 임후 공격은 이를 통하여 상대에 행한다. 공격 행하는 후속 또는
변(變)을 공격(공격)이라고 시용할 힘을 집중시킬 수 있는 무용은 모두 공격(공격)
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힘을 통하여 집중시킬 수 있고 당면할 수 있
는 17개의 무용이 사용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격(공격)은 대(對)공격(공격)이다.
그런데 이 무용은 다른 무용과는 달리 기(氣)를 집중하는 것이요 가
만 각(各)의 지(地)와 맞닿는 것이(氣)에 대한 힘이 되는 것이다.



태권도 지침 Instructions for Taekwondo

1966 | 19.2x26 | 정순천 기증

1966년 최흥희가 저술한 태권도 지침으로 태권도 기술에 관한 설명과 사진을 통해 태권도 수련생들과 입문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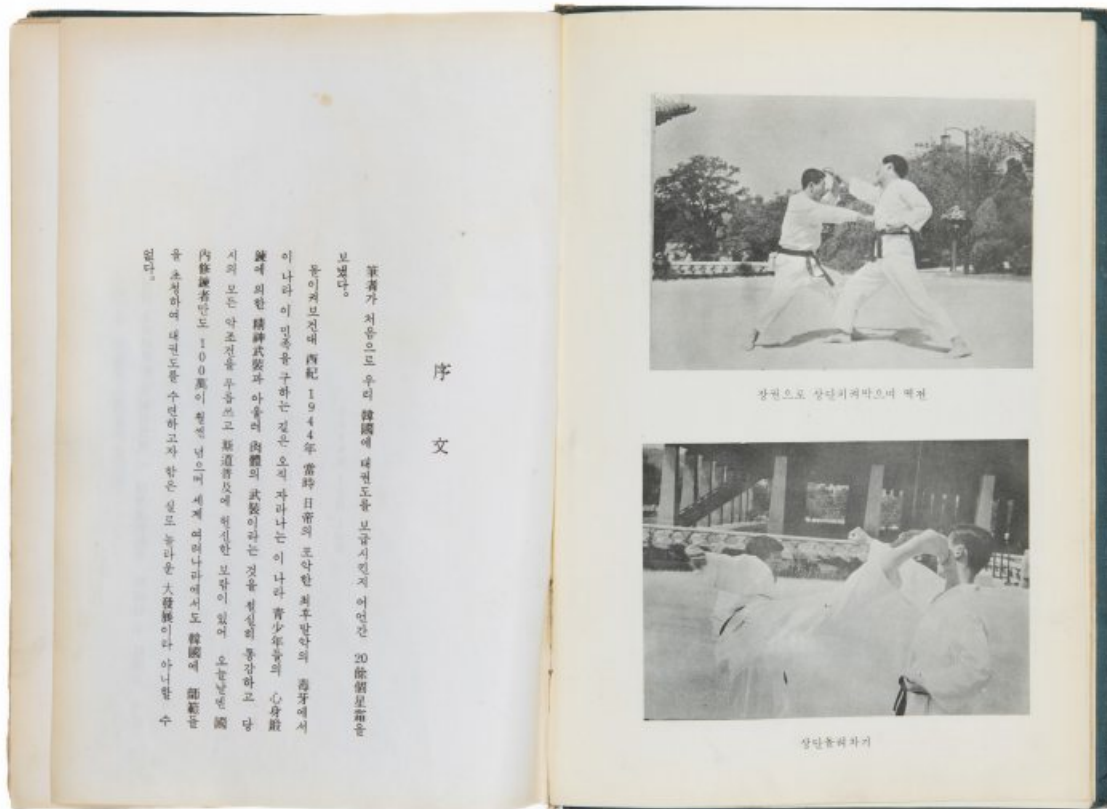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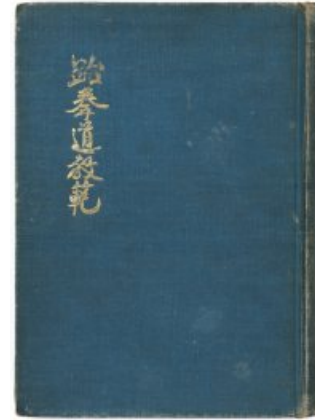


71

태권도 교범 Instructions for Taekwond

1968 | 16.3x22.5 |

1968년 출판된 이원국의 저서인 태권도 교범이다. 청도관 초대 관장을 역임한 이원국은 교범에서 태권도의 의의와 정신, 기술 등을 관련 사진과 함께 담았다.



著書가 처음으로 우리 韓國에 태권도를 보급시킨지 어언 20 餘年을
 보냈다.
 동아일보지대 西紀 1944年 當時 日帝의 苛酷한 統治의 酷牙에서
 이 나라의 민족을 구하는 것은 오직 자라나는 이 나라 靑少年들의 精神
 鍊成의 精神武裝과 아울러 肉體의 武裝이라는 것을 精神의 勇猛하고 肉
 體의 모든 약점을 무릅쓰고 跆拳道及에 혁신한 勇猛이 있어 오늘날 國
 內 修養班도 100萬이 興起된 今은 이 세계 여러나라에서도 韓國의 跆拳道
 을 추켜하여 태권도를 수련하고자 하는 실로 놀라운 大發展이다 아닐 수
 없다.

序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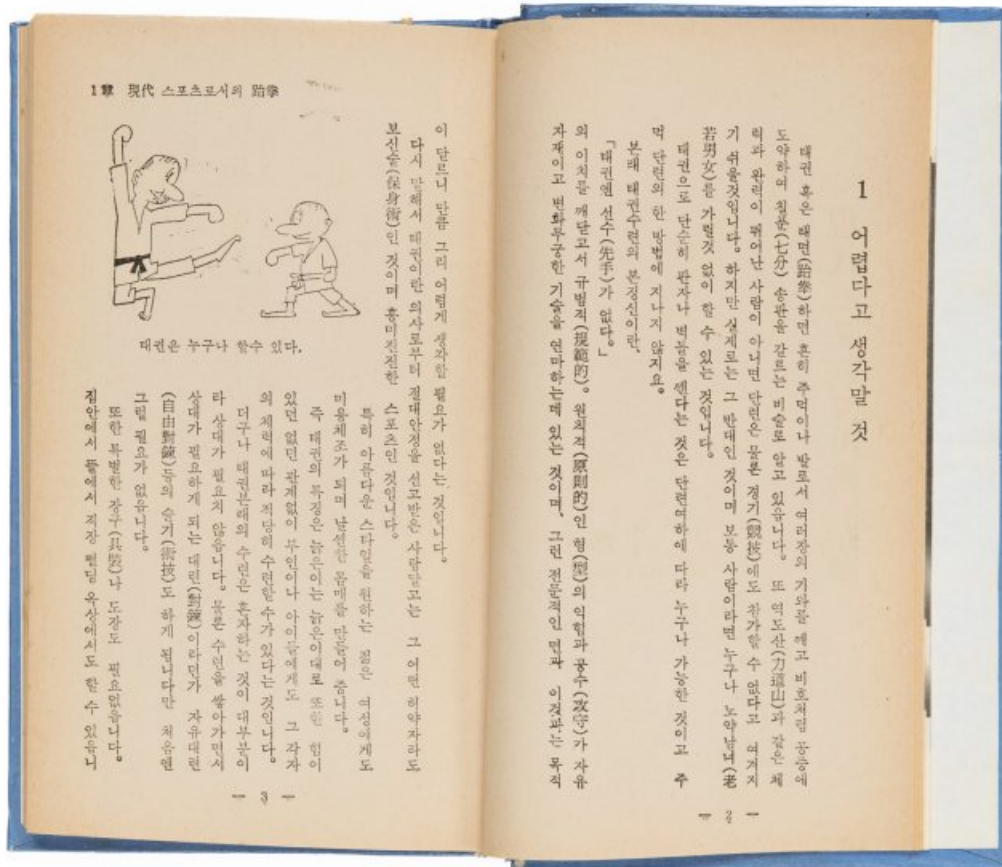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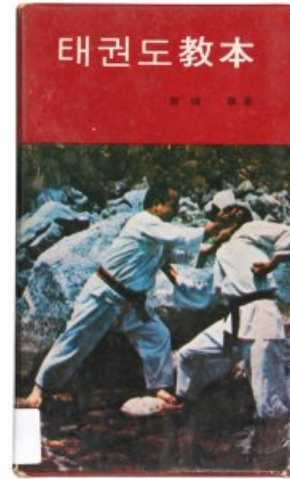


장권으로 상대의 머리를 찍기



상단올려차기

1968년 출판된 태권도 교본으로, 태권도를 수련하는 입문자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태권도 동작에 대한 내용과 사진 등이 담겨있다.



1章 現代 스포츠로서의跆拳道



태권은 누구나 할수 있다.

이 말은 누구나 할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다른 것이 아니다. 다만 태권이란의 사모부터 전대양정을 신고받은 사람만은 그 어떤 하야자라도 보신술(보身術)인 것이니 흥미있게만 스포츠인 것입니다.

특히 아름다운 스타일을 원하는 젊은 여성에게도 미용체조가 되기 남색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즉 태권의 특징은 남도이는 남은이대로 또한 힘이 있던 있던 관계없이 부인이나 아이들에게도 그 각자의 체력에 따라 적당한 수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태권은 체력과 수련은 호조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상대가 필요치 않습니다. 물론 수련을 쌓아가면서 상대가 필요하게 되는 태권(跆拳道)이라든가 자유태권(自由跆拳道)의 승기(승技)도 하게 됩니다만 처음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특별한 장구(具)나 도장도 필요없습니다. 집안에서 뜰에서 직장 편당 유선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1 어렵다고 생각말 것

태권 혹은 태면(跆拳道)하면 흔히 주먹이나 발로서 어떠한의 기와를 때고 비호처럼 공격에 도약하여 최후(七分) 승판유 갈르는 비술도 알고 있습니다. 또 역도산(力道山)과 같은 세력과 왕권의 때어난 사람의 아나면 단련은 물론 정기(體格)에도 참가할 수 없다고 여겨지기 쉬울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것이니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노력만하면 若男女를 가릴것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태권으로 단련하면 자나 비움을 생각하는 것은 단련하는데 따라 누구나 가능한 것이고 주목 단련의 한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패 태권수련의 본질적인 「태권엔 선수(先手)가 없다.」 원칙적(原則的)인 원(源)의 의함과 공수(攻守)가 자유자재이고 변화무쌍한 기술을 연마하는데 있는 것이며, 그런 절충적인 결과 이것은 목적


주월한국군사령부 창설 2주년 기념 태권도시범 리플릿

Leaflet for Taekwondo Demonstration of ROKFV

1966 | 13.8x20.9 | 류시항 기증

주월한국군사령부 창설 2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태권도시범 리플릿으로 한국어와 베트남어가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태권도의 기술, 월남태권도의 역사, 태권도의 신조, 시범순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비호 길이 남아는 때는
입어의 여지가 없다.

Không có sự may mắn nào để chống
lại sức tấn-công như còp bay.


There would be no chance to defend against the attack like a flying tiger

* 태권도의 기술 *

- 태권도의 기술은 무궁 무진이다. 즉 지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신이 올린 기술, 그리고 태권도 정신에 따라 가지각색의 힘에의
극점에도 무의식중에 비호의 길이 자기를 빚어 키며 적을 무찌
를수 있는 것이다.
- 태권도의 기법을 대법하면 빈틈됨을 이용한 힘과 질로써이다.
"하-른의 이론에 의하면 모든 힘은 그것에 빈틈이 있는 특유한
힘을 갖는다. 빈틈됨은 즉 넘쳐나기인 인력을 1분의 무게로 100
분의 빈틈됨 같은데 1분의 심층력이 생긴다. 그렇기때문에 적이
나를 향하여 공격해오는것을 기법적 때에도 당당한 이점을 들수
있는것이다. 질로써는 체중의 전힘을 손끝이나 손바닥부분(손모)
으로 치면 적에게 치명상을 주는것은 손으로 나오는 몸의힘은 그
모수의 구질이적들수록 비배하여 더 깊어지며 눈의어공 신을신고
려는다면 체중이 분산되어 눈자국이 인다. 기법적 질로써는 원이
회 길다. 거기에 인체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먼고 깊어질 날카로
시 두터 저의힘이 가신되어 태권도의 무서운 위력이 생기는 것이다.

Ky-thuat Tae Kwon Do


- Tae Kwon Do có sự khác biệt của kỹ-thuat viên. Tiêu biểu cho
sức mạnh của tinh-thần có thể được chứng minh qua sự tập-
luyện Tae Kwon Do. Chúng tôi có thể tự-vệ bằng những cú đánh
bất ngờ như còp bay.



어린이들의 쇼립이 뛰어난아.

Biểu-diễn xuất-sắc của thiếu-nhà Việt-Nam

Skillful performance by Vietnamese childr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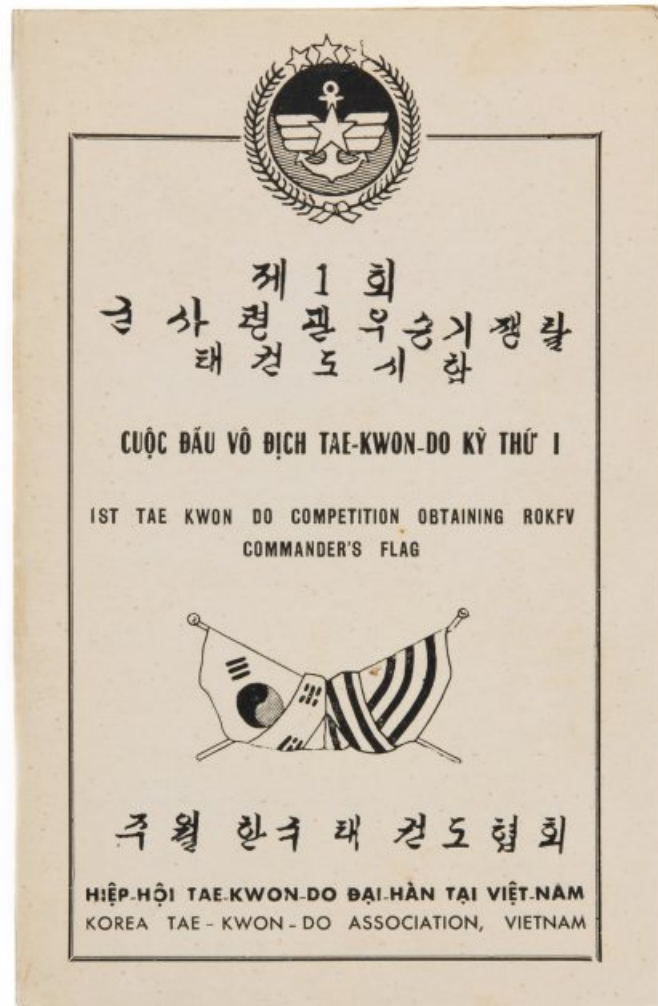


제1회 군사령관우승기 쟁탈

태권도시합 리플릿 Leaflet for Taekwondo Contest ROKFV Commander's Flag

1966 | 13.2x20 | 류시항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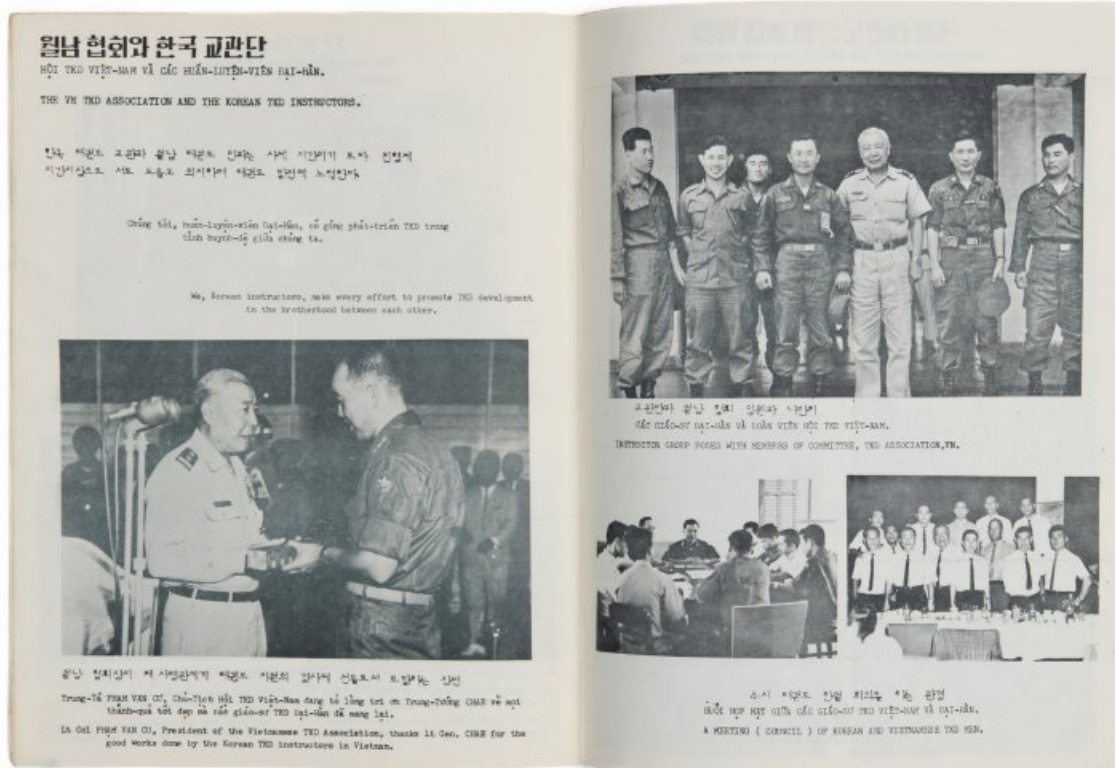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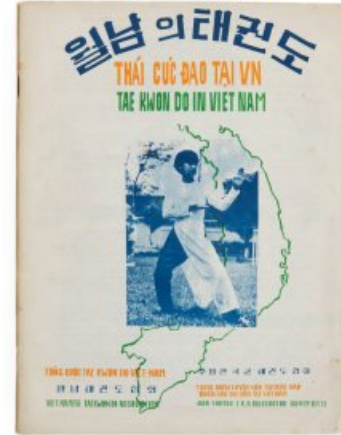
베트남으로 파병된 한국군은 군사령관기 혹은 사단장기 쟁탈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여 수련생들의 의지와 동기를 촉진 시켰다. 제1회 군사령관우승기 쟁탈 태권도 시합 리플릿으로, 태권도의 신조가 한국어, 베트남어, 영어로 적혀 있다.



월남의 태권도 Taekwondo in Vietnam

1967 | 20.3x26.5 | 류시황 기증

1967년 월남태권도협회에서 발행한 월남의 태권도 창간호다. 주월한국군사령관 채명신의 인사말, 태권도의 5개 신조, 연혁, 태권도의 기술, 태권도란 어떤 무도인가, 태권도 교관분포도, 세계태권도현황, 주월한국태권도협회구성, 한국교관단 파월 소개, 교관단의 임무, 교육장면, 보조수련, 연무시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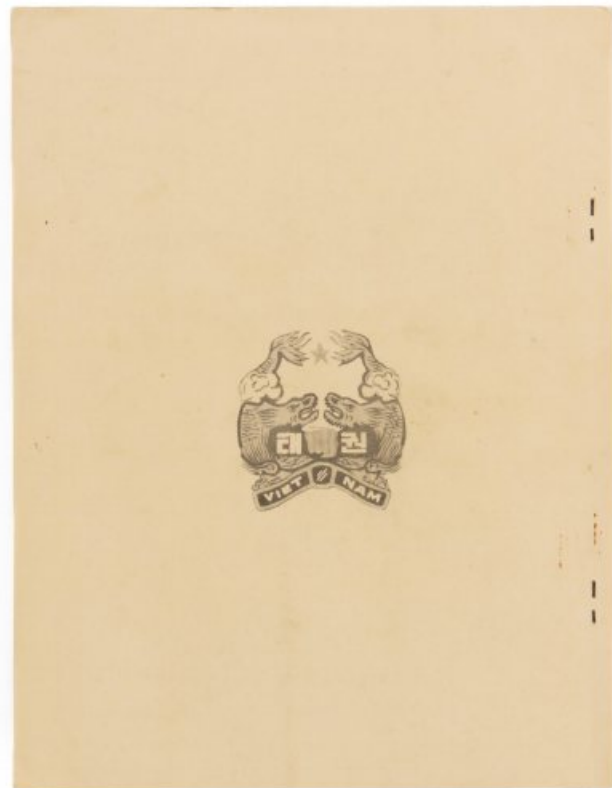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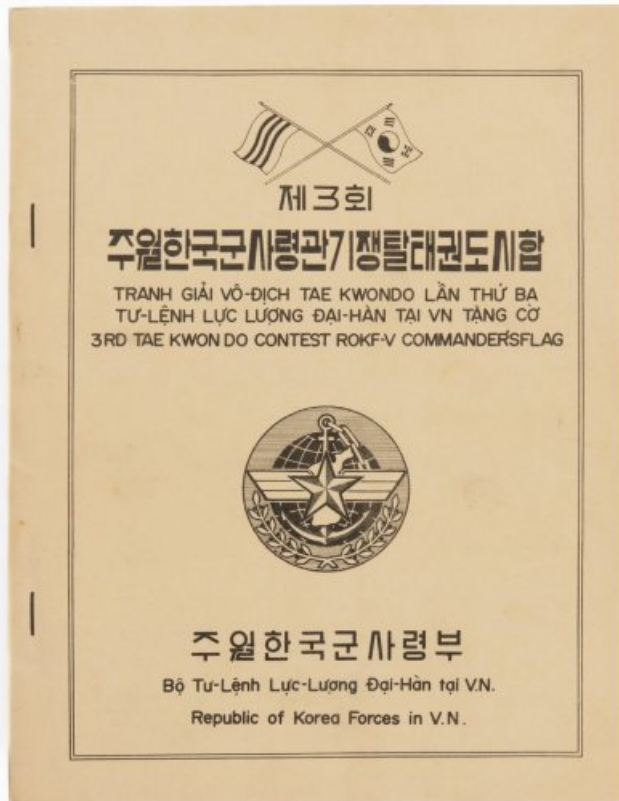


제3회 주월한국군사령관기쟁탈 태권도시합

태권도시합 팸플릿 Pamphlet for Taekwondo Contest ROKFV Commander's Flag

1968 | 19.8x25.6 | 류시항 기증

1968년 개최된 제3회 주월한국군사령관기쟁탈 태권도시합 팸플릿으로, 한국어와 베트남어가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격려사, 대회 식순, 대회 설명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77

주월 태권도 교관단 기념패 Memorial Tablet for the Korean Forces Taekwondo Instructor

1967 | 25x30.8 | 류시항 기증

류시항의 주월 태권도 교관단 기념패이다. 해병대사령부 교관 중위 류시항의 성공적인 파월임무 완수를 축하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해병대사령부교관 중위 유시항 귀하
귀하의 성공적인 파월임무 완수를 축하합니다.
교관 단장 중령 김석규 외 81명 교관 일동"

78

감사패 Appreciation Plaque

1962 | 9x11.4 | 안해욱 기증

1962년 주한미군 통신부대에서 태권도 사범 안해욱에게 수여한 감사패이다. 감사패는 부대원들의 체력 향상과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하여 기여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의미에서 수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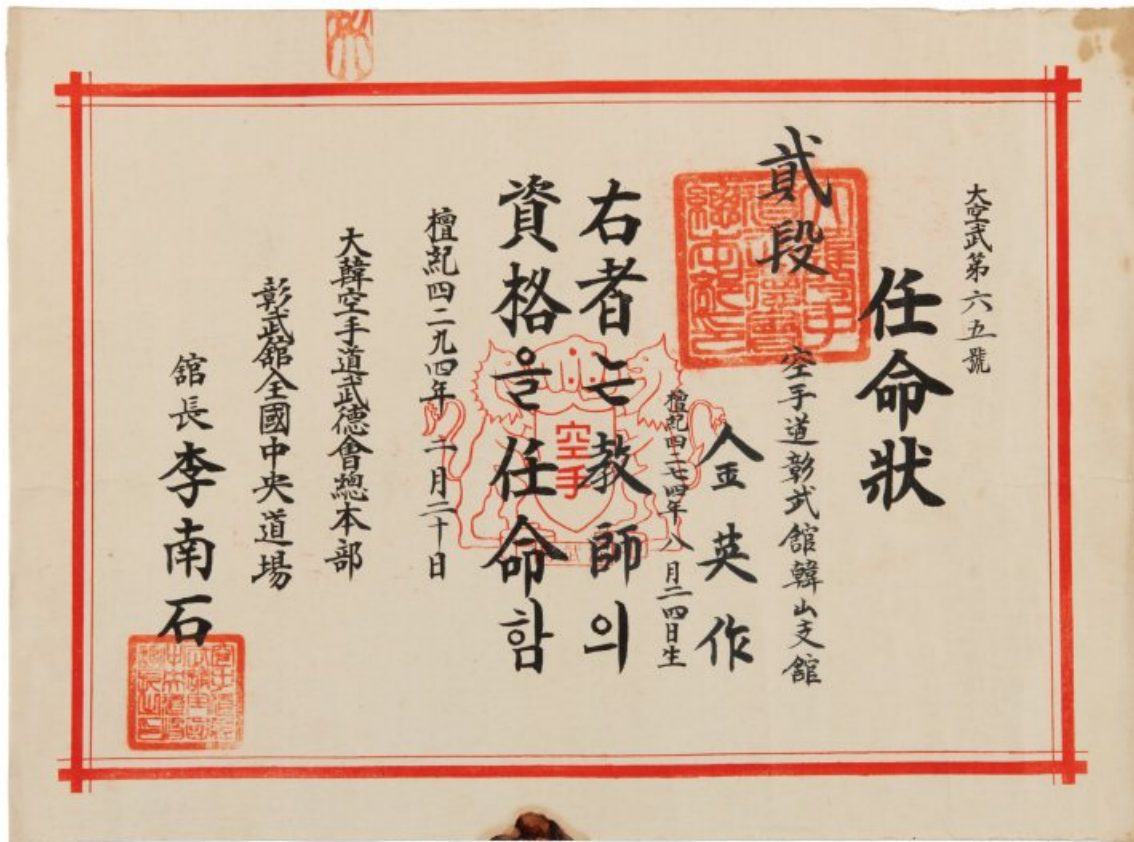
"미8군 통신부대 사범 안해욱
귀하의 태권도수련을 통한 향상
부대원의 최력
한미우호 증진에 감사드립니다
1962. 3. 15.
WILLEAMS S, HANK."

79

임명장 Appreciation Certificate

1961 | 35.9x26.2 | 김영작 기증

1961년 창무관 전국중앙도장에서 김영작에게 수여한 임명장이다.
김영작을 2단 교사로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임명장 Appointment Certificate

1968 | 40.7x28.5 | 서명수 기증

1968년 국제태권도연맹(ITF)에서 서명수에게 수여한 임명장이다.
서명수를 구라파태권도협회 사범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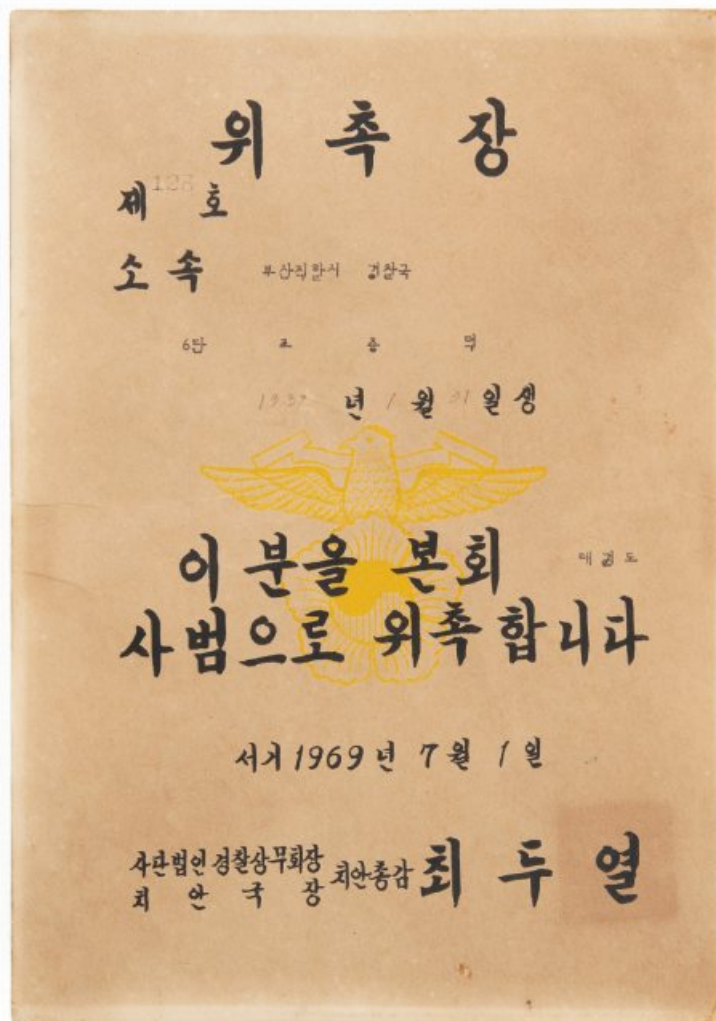


81

위촉장 Appointment Certificate

1969 | 18.8x26.6 | 조증덕 기증

1969년 경찰상무회에서 조증덕에게 수여한 태권도 사범 위촉장이다.







논고

송형석

계명대학교 태권도학과

허건식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1. 들어가는 말

현대 태권도의 발달과정에서 1950년대와 1960년대는 흔히 초창기, 여명기, 형성기 등으로 분류된다.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태권도의 변화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서로 경쟁하던 여러 가지 맨손 무예 명칭이 태권도로 통일되었으며, 명칭 통일 과정에서 관련 조직들도 대한태권도협회라는 단일 조직으로 통합되었다. 둘째, 실전 격투 무예의 성격이 강했던 태권도가 스포츠 경기로 변화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련 방식이 크게 바뀌었고, 발차기 기술도 크게 발달하였다. 셋째, 태권도의 역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나타났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 전통 맨손 무예의 기원과 발전상이 밝혀졌다.

2. 명칭 통일과 통합 조직 형성

태권도跆拳道란 말은 1955년에 출현하였다. 조선 중기에 타권打拳, 대권大拳, 태권太拳 같은 유사 명칭의 무예가 존재했으나, 이것은 현재의 태권도와는 크게 관련성이 없는 것이었다. 현재의 태권도 명칭은 1950년대 초반까지 당수唐手, 공수空手, 권법拳法 등으로 불리던 외래 무예가 한국의 맨손 무예 전통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난 것이다.

1945년 광복을 전후하여 일본과 만주 등에서 귀국한 사람들이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도장을 세우고 맨손 무예를 지도하기 시작했다. 이때 세워진 다섯 개의 도장을 태권도의 기간 도장이라고 한다. 이원국이 1944년 서울 서대문구 영신 학교 강당에서 결성한 ‘당수도 청도관’, 전상섭이 1946년 유도관이었던 조선연무관에 결성한 ‘조선연무관 공수도부’, 윤병인이 1946년 서울 종로의 기독교청년회관에 창설한 ‘YMCA 권법부’, 황기가 1947년 경 용산역 부분 철도국에 결성한 ‘운수부우회 당수도부’(무덕관), 노병직이 1946년 개성 관덕정에서 젊은이들을 가르키며 창설한 ‘당수도 송무관’ 등이 5대 기간 도장이다. 각 도장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이 지도했던 무예는 당수, 공수, 권법 등이었다.

5대 기간 도장은 6.25 전쟁 직후인 1950년대 초반 설립자들의 실종, 월북, 망명 등으로 내분을 겪었고, 명칭을 개정하거나 신생관으로 분파하였다. 조선연무관은 지도관과 한무관으로 개명, 분파하였고, YMCA 권법부는 창무관과 강덕원으로 개명, 분파하였으며, 청도관은 오도관과 정도관으로 개명, 분파하였다. 무덕관의 초대 관장 황기는 자신이 세운 무덕관을 탈퇴한 후에 대한수박도협회를 창설하였다. 이처럼 5대 기간 도장에서 새로운 명칭의 신생관이 분파하면서 1950년대 말에는 수십 개의 관이 난립하였다.

한편 도장의 명칭에 나타난 당수와 공수는 오키나와 가라테의 한자식 표기이며, 권법은 중국에서 도입된 맨손 무예의 명칭이다. 이런 이유에서 당시 지도자들은 이 명칭을 한국적인 것으로 변경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느끼고, 그 일을 실천한 인물은 황기였다. 당수도 무덕관의 설립자 황기는 1950년 화수도(花手道) 교본을 출간하면서 당수라는 명칭을 화수로 변경하였다. 花手의 花는 1949년 출간된 이선근의 『花郎道研究』에서 영향을 받은 듯하다. 즉, 황기는 화수도로의 명칭 변경을 통해 자신의 무예가 중국이나 일본이 아닌 한국의 고대 국가 신라의 화랑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맨손 무예임을 주장하려고 했다. 이러한 추정은 황기가 1970년 간행한 저서 『수박도 대감』 제4장에서 다루고 있는 화랑도에 관한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기는 1960년 고려 시대의 맨손 무예 수박을 본떠 수박도(手搏道)라는 이름을 또다시 창안하였으며, 사단법인 ‘대한수박도회’를 만들어 문교부에 등록하기까지 했다(서성원, 2007). 이를 통해 자신의 무예가 신라와 고려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한국의 전통 무예임을 강조하려는 황기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명칭 변화를 시도한 두 번째 인물은 최홍희이다. 청도관 출신의 남태희와 함께 군부대 내에 오도관을 설립한 최홍희는 1954년 9월 제1군 창설 4주년 겸 29사단 창설 1주년 기념식장에서 당수 시범을 보였고, 그것을 택견으로 착각한 이승만대통령의 “저것은 예로부터 전해오는 택견이야. 앞으로 전 군에 보급시켜야 해!”라는 말에서 영감을 얻어 태권도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는 1955년 4월 사회 저명인사들을 중심으로 명칭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신이 만든 태권도를 공식 명칭으로 인준하도록 했다. 최홍희는 이 인준을 근거로 각 계파의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만든 태권도란 말을 기존의 무예들을 통칭하는 명칭으로 삼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공수, 당수, 권법 명칭에 익숙해 있던 당시 지도자들은 태권도라는 새 명칭에 반감을 나타냈고, 최홍희의 제안에 반대했다. 이렇게 태권도를 주장하는 측과 당수, 공수를 주장하는 측은 1960년까지 계속 대립하였으며, 명칭은 통일되지 못했다(강원식, 이정명, 2002).

명칭 통일의 계기가 된 것은 박정희 정권의 등장이다. 1960년대 초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정부는 혼란스러운 사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사단체통합령을 내렸다. 1960년 대한수박도회, 대한태권도협회, 공수도창무관, 공수도송무관, 강덕원무도회, 한무관중앙공수도장 등으로 불리던 각 계파들이 정부의 지시에 따라 통합 조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명칭의 문제가 다시 불거졌고, 공수, 당수를 주장하는 측과 태권도를 주장하는 측이 대립하였다. 이때 타협의 산물로 등장한 명칭이 태수도(跆拳道)이다. 태수도는 태권도의 태와 당수, 공수의 수를 결합시켜 만든 명칭이다. 이제 통합 조직의 명칭은 대한태수도협회가 되었다. 태수도를 공식 명칭으로 채택한 것은 1961년의 일이다. 4년 후인 1965년 1월 최홍희가 대한태수도협

회 3대 회장으로 취임하였으며, 동년 8월 5일 이 통합 조직의 명칭을 대한태권도협회로 바꿈으로써 태권도가 공식적인 명칭이 되었다(송형석, 2008).

3. 스포츠 경기로의 변화

현대 태권도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또 다른 변화는 실전 격투 무예에서 스포츠 경기로의 전환이다. 태권도의 경기화는 광복 이후 공수, 당수, 권법 등 외래 무예가 한국의 무예 전통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산물이다. 태권도가 본격적으로 경기화 하기 전에도 소박한 형태의 겨루기 경기가 존재했다. 6.25 전쟁 전까지 1세대 지도자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던 겨루기 경기방식은 급소 앞에서 공격을 멈추는 촌지방식이었다. 전후 태권도계에서 1세대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점차 약해지고 국내에서 수련한 2세대 지도자들이 주도권을 잡게 됨에 따라 공격을 급소 앞에서 멈추지 않고 신체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경기방식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태권도의 경기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의 일이다. 태권도계에서는 이때부터 경기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의가 격렬하게 이루어졌다. 경기화를 반대하는 측은 대부분 1세대 지도자들로서 최홍희와 황기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최홍희는 “태권도의 경기화는 태권도 기술의 삼대 요소인 형, 대련, 격파 중에서 대련(겨루기)만으로 승부를 결정하게 하므로 불합리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경기화에 반대했다. 그는 또한 경기 시에 착용하는 호구가 기술을 완전하게 발휘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하여 호구의 착용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황기 역시 “무예란 원래 인간의 생명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시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경기가 주가 되면 “기술이 그 형태나 방법에서 근본적으로 변

하게 될 것이므로 경기화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경기화로 말미암아 무도 정신이 무시될 것이며, 단·급 심사제도 역시 불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경기화에 반대했다(양진방, 1986).

한편 이들의 보수적 태도와는 달리 2세대 지도자들은 적극적으로 경기화에 찬성했다. 태권도의 경기화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실천한 인물은 이종우이다. 따라서 국기원은 이종우를 “현대 태권도의 종합 설계자”이자 “태권도 경기화의 선도자”로 평가하고 있다(국기원, 2021). 이종우는 태권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스포츠 경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태권도가 경기화 되면 대한체육회 정식 가맹단체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사 단체 중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나아가 이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태권도를 스포츠 경기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실전 격투 무예였던 태권도를 스포츠 경기로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합리적인 경기 규칙을 제정하는 일이다. 스포츠 경기의 규칙은 일반적으로 경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쟁 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경기자의 안전도 보장해 주어야 하며, 경기 운영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고, 경기를 흥미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어야만 한다.

태권도에 스포츠 경기 규칙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태권도가 가진 무예의 성격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즉, 무예가 갖는 기술의 다양한 요소들이 제한되어야 하고, 실전 격투 기술이라는 성격을 포기하고 규칙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수 있게 겨루기 방식이 재조직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치명적 공격으로부터 경기자를 보호하는 일이다. 일본의 근대

가라테 경기가 선택한 방식은 급소 앞에서 멈추는 촌지 방식寸止方式이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승패의 판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심판의 주관에 의존하기 때문에 판정의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스포츠로서 관중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가라테와 달리 태권도는 경기 운영에 있어서 호구 착용과 완전 타격방식을 선택하였고, 기술적으로 손기술을 억제하고 발기술을 장려하는 규칙을 제정하였으며, 흥미 유발을 위해 몸통 가격과 얼굴 가격을 구분하는 차등 득점제를 도입하여 화려한 발기술을 유도하였다. 이와 같은 경기화 과정을 통해 태권도는 이전에 존재했던 가라테(공수도과 당수도)와 권법 같은 외래 무예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기술 면에 있어 매우 다양하고 독특한 기법들이 출현하였다. 태권도가 스포츠 경기로 변화하면서 나타난 기술적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태권도는 경기화를 통해 기술의 중심이 손에서 발로, 즉 지르기에서 차기로 변화했다. 태권도계 원로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일본 유학 중 가라테를 배웠던 한국 수련생들은 일본 수련생들과는 달리 손기술보다 발기술을 선호했다고 한다. 똑같은 스승을 모시고 배웠어도 일본 수련생들이 손기술에 능했던 반면에 한국 수련생들은 발기술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차기 기술을 선호했던 수련자들의 성향은 태권도가 스포츠 경기로 탈바꿈되는 과정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그 결과 태권도는 점차 차기 위주의 기예로 바뀌어 갔다. 차기 기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이전부터 존재했던 기술들이 더욱 세련되어지고 새로운 기술도 많이 개발되었으며, 특히 차기의 스피드와 파괴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때 등장한 발등 타법과 동체 회전력을 이용한 차기 기술, 연속

차기 기술 등은 경기화로 인해 이루어진 중요한 기술적 발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

둘째, 기술의 기본 구조가 변화하였다. 종래 태권도의 기술은 상대편의 공격과 그에 대한 방어 및 반격의 3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러한 구조가 경기화과정에서 상대편의 공격과 그에 대한 반격의 2중 구조로 변화되었다. 그렇다면 왜 기술의 기본 구조가 변화했을까? 종래의 구조에서 반격 개념은 기술적으로 공격의 기술과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반격계 기술은 방어기술+공격기술로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존의 기술 구조는 여러 차례의 경기경험을 통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공격에 대한 방어/반격의 구조는 상대가 1차 공격으로 그친다는 가정하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만일 상대가 공격+공격과 같은 연속 패턴으로 공격해오면 이 구조는 쉽게 무너져버린다. 경기 중에 이러한 사태는 쉽게 나타난다. 결국 공격에 대한 방어/반격의 구조는 포기되어야만 했고, 그 대안으로서 방어/반격이 하나의 기술에 융합된 보다 고차원의 기술이 개발되어야만 했다. 그 결과 오늘날 태권도경기에서 보편적 기술로 되어버린 받아차기 기법이 개발된 것이다. 발기술 중심으로 이루어진 태권도기술의 기본구조는 이제 차기(공격)와 받아차기(반격)의 이중구조로 변화된 것이다. 받아차기 개념이 일반화되면서 각 차기 유형에 대응하는 받아차기 유형들이 새롭게 개발되었고, 이와 같은 변증법적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들이 끊임없이 탄생하게 되었다.

셋째, 태권도가 스포츠 경기로 변화하면서 수련자들의 연습 방식도 변화하였다. 즉, 경기화 이전의 태권도 수련자들은 주로 혼자서 품새와 단련을 반복 수련하는 방식으로 연습하였지만, 경기화 이후에는 타인과 함께 겨루는 방식을 중심으로 연습하였다. 이와 같은 연습 방법의

변화는 기술 연습을 보다 실제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태권도가 스포츠 경기로 변화함으로써 대인 연습 겨루기 방법이 크게 발달하였고, 실제 겨루기상황에 가까운 연습 조건과 방법을 갖출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많은 기술발전이 이루어졌다(양진방, 1986).

4. 역사적 근거 마련

1960년대 태권도의 발달과정에서 이목을 끄는 행보 가운데 한 가지는 태권도의 역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출현이다. 1950년대 말까지 출간된 교본에는 무예의 대략적인 역사만 언급되었을 뿐 태권도의 역사에 대한 관심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태권도지도자들은 한국 전통 맨손 무예의 역사를 탐구하여, 우리나라에도 일본이나 중국에 뒤지지 않는 맨손 무예의 전통이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던 대표적인 인물은 최흥희였다. 그는 역사학자 이선근과 함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맨손 무예들을 탐구하여 그것을 태권도와 연결시키려고 노력했다.

『주간조선』 1968년 11월 3일자 26쪽에는 「남대양 주까지 뻗은 고려인삼과 태권도」라는 이선근의 글이 실려 있다. 이 글은 근세의 동양 시장과 고려인삼, 삼국시대의 무사도와 태권도, 고려의 수박과 태권도 등 세 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선근은 두 번째 절에서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부터 유구한 맨손 무예 전통이 존재해왔으며, 일본의 가라테와 중국의 권법도 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쓰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의 맨손 무예 전통을 입증하기 위해서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경주 석굴암의 금강역사상과 고구려 환도성 각저총의 벽화 수박도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신라 王匠의 위대한 정력으로 이루어진 석굴암의 金剛力士 彫像을 살펴보라. 불끈 쥐 두 주먹과 역센 팔다리의 발 모습은 오늘날 跆拳道가 타나내는 그 포즈와 무엇이 다를 것이냐. 그러한 四肢六體의 훈련이 없이 저러한 포즈가 취해질 수 없다고 함은 누구나 일목에 요연할 것이다. ... 뿐만 아니라 고구려 제10대 山上王 당시에 만들어진 還都城 角抵塚의 벽화가 보여주는 手搏의 對鍊자세를 보아도 오늘의 跆拳道의 原型임을 짐작케 하고도 남는다.

한편 이선근은 한국의 전통 무예가 일본과 중국의 무예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일본사람들은 옛날부터 주먹 쓰는 法=拳法을 가르켜 「唐手」라 써놓고 「가라데」라고 읽는다. 삼국시대 이후의 우리나라를 가리켜 가라=加羅라고 그들이 부른 것은 사료에도 얼마든지 나오니 일본의 「가라데」와 柔術같은 것이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것은 지정학적인 면과 아울러 짐작되고도 남는다. 더구나 일본 고대의 武士道라고 하는 것이 신라의 화랑도와 유사한 점도 많으니 어찌할 것이냐.

이선근은 이어서 丹齋 申采浩의 『朝鮮武士英雄傳』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고려 시대 松都의 手拍이 곧 선배 競技의 일부분이니 手搏이 중국에 들어가 拳法이 되고, 일본에 건너가 柔道가 되었다.” 이선근은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태권도가 우리나라 전통 무예의 맥을 잇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崔장군은 태권의 특징인 발의 技術과 手搏의 장점인 손의 기술을 토대로 삼고 이와 비슷한 다른 나라의 무도가 결코 추종할 수 없을 정도로 중횡 무진한 足技의 對鍊과 변화무

쌍한 手技의 묘미를 연구, 체득하는 동시에 체중의 여하로 구애됨을 받지 않고 남녀노유 누구나가 다 연습하고 체득할 수 있는 蒼軒流의 태권도를 완성하여 전 세계에 소개할 수 있었다.

위 인용문에서 창헌류 蒼軒流는 최홍희가 만든 품새를 일컫는다. 이선근이 남긴 이 짧은 글은 이후 작성될 제도권 태권도 역사의 골격이 되어 오랜 세월 동안 태권도인의 의식을 지배하게 된다. 이선근이 만든 이 태권도사 골격에 살을 입힌 대표적인 인물은 조완목(1971a; 1971b)과 정찬모(1976)이다. 애초 A4 한쪽 분량의 글에 새로 발견된 자료와 사진, 역사적인 내용이 추가되어 10장으로 늘고, 이 10장이 다시 20장으로 계속 늘어났다. 그러나 이 선근이 만들어낸 골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후 연구는 근세 이전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전통 무예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으며, 이 방면의 역사 정립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부족한 사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통 맨손 무예의 기원과 발전상을 밝힘으로써 태권도가 풍부한 무예사적 전통 위에서 자라난 한국 고유의 전통 무예라는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으며, 한국이 태권도 종주국임을 자랑스럽게 주장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1960년대 말 이선근에 의해 발판이 다져졌고 1970년대 초에 조완목과 정찬모에 의해 보충된 태권도 역사연구는 분명 태권도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연구물들은 태권도의 형성과정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평가를 가로막는 근거로 작용하였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원식, 이경명(2002). 우리 태권도의 역사. 서울: 도서출판 상아기획
- 국기원(2021). 이종우, 현대 태권도의 종합 설계자. 서울: 박영사.
- 서성원(2007). 태권도 현대사와 길동무하다. 서울: 상아기획.
- 송형석(2008). 跆拳道史 新論. 대구: 이문출판사.
- 양진방(1986). 『광복이후 태권도의 발전과정과 그 역사적 의의』. 서울대학교대학원 미간행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선근(1968. 11. 3). 「남대양주까지 뻗은 고려인삼과 태권도」, 『주간조선』 26쪽.
- 정찬모(1976). 『문교부학술총서: 태권도』. 문교부.
- 조완목(1971a). 태권도사. 『태권도』 창간호. 대한태권도협회, 14-21쪽.
- 조완목(1971b). 태권도사 2. 『태권도』, 제2호, 54-64쪽.
- 최홍희(1997). 태권도와 나. 서울: 도서출판 사람다움.
- 황기(1970). 『수박(唐手)도 대감』. 서울: 도서출판 한우리.

1. 들어가는 말

1950년대와 1960년대 태권도는 한국사회가 혼란과 정비의 과정을 겪은 시대다. 이 시기에 맨손무예의 태권도는 다양한 관餽 중심의 도장이었던 체계에서 ‘태권도’라는 명칭이 만들어지고 통합된 협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본고는 태권도의 성립기라 할 수 있는 1950년대와 60년대 태권도의 명칭제정과 함께 협회 설립, 경기화, 해외보급 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살펴 보았다.

2. ‘태권도’ 명칭 제정

손기술과 발기술 위주의 무예인 태권도는 1950년대 한국의 무예로 시작되었다. 1950년 6월에 일어난 한국전쟁을 계기로 다양한 변화가 있던 한국사회 속에서 태권도는 전쟁 이전과는 달리 관餽의 붕괴와 분열로 기존 5대관에서 9대관을 비롯한 군소 관중심의 도장들이 급증했다. 무엇보다 해방이후 5대관중 청도관, 조선연무관 권법부, YMCA권법부의 창설자들이 실종되거나 한국을 떠나면서, 남은 무덕관과 송무관은 전쟁 이후 재정비를 거쳐 활동할 수 있었지만, 창설자를 없는 3개관은 제자들에 의해 기존 관을 계승하거나 새로운 관을 창설하게 되었다. 예를들어 조선연무관 권법부는 지도관으로 계승하고 한무관으로 파생되었으며, YMCA권법부는 창무관으로 계승되고 강덕원과 청도관 등으로 분파되었다. 그리고 청도관은 청도관이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계승하였으며, 분파된 정도관과 오도관이 생겨났다. 이렇게 계승되거나 분파된 관들은 전쟁이후 9개관으로 확대되며 치열한 경쟁을 하였다. 이처럼 분파된 관중심의 각축전이 있었음에도 군餽 중심으로 활동하던 최홍희는 1952년 오도관 개관하였으며, 1953년 제주도 모슬포에 육군 제 29사단 창설하여 태권도교육기관을 만들었다.

또한, 최홍희는 1955년 '명칭제정위원회' 발족을 통해 ‘태권도’라는 명칭을 제정하였다. 이 배경에는 1954년 최홍희 육군소장이 주관한 당수도 시범을 관람한 이승만 대통령이 “저것이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있던 태권이다”라는 말에서 착안한 것이다. ‘태권도’라

는 명칭은 최홍희와 당시 그의 부관이었던 남태희와 함께 차기기술 중심의 전통무예인 택견을 계승하겠다는 의미를 내포시키고, 기존의 관들이 사용하던 명칭인 당수, 공수, 권법 등이 손기술 위주에서 ‘태跆’자의 발기술의 의미를 추가해 손과 발을 사용하는 맨손무예라는 의미로 ‘태권도’라는 명칭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이 명칭은 명칭제정위원회의 동의를 얻었고,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1955년 4월 11일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태권도’ 명칭 인가 및 채택을 받게 되었다.

3. ‘대한태권도협회’ 협회창설

한국전쟁이전 5대관이 중심이 되어 활동할 때부터 각 관들의 공동 업무를 해결할 협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협회의 모색은 공인 승단심사와 창설자의 지위, 그리고 사무실 이용에 대한 문제들이 논의되었으며, 전쟁기간중에도 일부 지도자들에 의해 협회를 조직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구성원들의 합의가 원활하지 못해 성사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전쟁 이후인 1959년 3월 최홍희의 주도하에 ‘대한태권도협회’가 출범해 ‘태권도’라는 명칭으로 최초의 해외 시범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 관의 규모가 컸던 무덕관과 청도관이 탈퇴하면서 분쟁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무덕관은 ‘대한수박도회’를 만들어 독자적으로 문교부에 등록했다. 하지만 유사한 두 단체의 승인이 모두 취소되어 협의체를 만들려던 협회 구성은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1960년대초 4.19 혁명과 5.16 군사쿠데타는 태권도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 당시 사회 각계의 정비와 더불어 태권도역시 유사단체 통합안이 추진되었다. 당시 군사 정부의 포고령에 따라 사회단체 재등록이 시행되었고 문교부는 유사단체 통합을 유도하였다. 이 때

문교부는 태권도의 각 관들을 통합 관리할 뿐 아니라 새로운 맨손무예경기를 주관할 실질적인 협회 구성을 강력히 추진했다. 당시에 각 관들은 태권도, 수박도, 권법, 당수도, 공수도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였지만, 태권도의 ‘태跆’와 수박, 당수, 공수의 ‘수手’가 결합된 절충안으로 ‘태수도’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 1961년 9월에 ‘대한태수도협회’가 정식 발족하였고, ‘대한태수도협회’라는 이름으로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로 승인을 얻어 경기단체로 가입되었다. 이를 계기로 공인 승단 심사는 협회 주관으로 일원화되었고, 1963년 승단심사를 위해 협회차원에서 태권도 제정형인 ‘형(틀)’을 완성했고, 이러한 대련(겨루기)과 형(틀)은 1960년대 태권도의 해외 보급을 시작으로 아시아를 비롯해 유럽과 미주지역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대한태수도협회가 발족하면서 최초의 공식 심사는 1962년 11월 ‘제1회 전국승단심사대회’이다. 당시 내용을 보면, 형(틀), 대련(겨루기), 논문(3단 이상)이었다. 품새는 초기에 평안, 철기, 발한, 십수 등 가라테와 장권, 팔기권 등 만주에서 행해지던 권법, 그리고 화랑, 계백, 충무, 을지, 삼일 등 최홍희가 창작한 창헌류가 포함되었다. 승단 응심자는 자신의 단수에 배정된 품새 중 2종을 선택하였고, 대련은 경기용 보호대를 착용하고 자유 겨루기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3단 이상 응심자는 논문(필기)을 추가했는데, 첫 회 논문 제목은 ‘각 유파 형 통일에 대한 발전과 그 방법’이었다.

4. 태권도경기(겨루기)의 시작

태권도경기는 1962년 대구에서 개최된 제4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태수도 대련(겨루기)경기가 시범경기로 개최되었고, 1963년 전주에서 개최된 제44회 전국체육

대회에서 정식종목으로 승격하면서 큰 변화를 일으켰다. 상대와 실제 겨루면서 만들어진 보호대는 직접 타격 방식인 차기 위주의 대련경기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보호대는 약속 겨루기가 아닌 실전 겨루기라는 측면서 태권도경기가 스포츠로서의 가능성과 실전적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것은 현대 태권도가 ‘발차기 혁명’으로 불릴 만큼 성장하게 할 수 있었던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다. 특히 현대 태권도 경기에서 주된 득점 기술로 차기를 중시한 점은 한국적 기질과 특기를 살린 한국무예가 되었으며, 대련(겨루기) 무예경기로서 국제스포츠계에서도 현대식 격투 스포츠(combat sports)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1965년 1월 최홍희가 대한태수도협회 회장이 되면서, 겨루기 경기와 더불어 통일틀 제정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같은 해 8월에 대한태수도협회를 ‘대한태권도협회’로 명칭이 재개칭하였다. 또한 1966년 10월 대통령기 정탈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를 개최하였고, 1967년 대한태권도협회는 총 17개의 유급자용 및 유단자용 형 제정 작업을 시작해 1968년 품새 제정위원회가 조직되어 팔괘와 유단자 품새 총 17개로 확정되었다. 뿐만아니라 1968년 6월 16일 주한 외국인 개인선수권대회가 되었으며, 1969년 대한태권도협회 우리말 용어를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5. 태권도의 해외 보급

태권도사범들의 해외진출은 태권도 세계화의 시작이었다. 해외진출 태권도 사범의 역사는 1960년을 전후해 시작된다. 초기 해외 진출은 베트남과 미국이었다. 1959년 응고딘디엠(Ngo DinhDiem, 1901-1963) 베트남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의 초청으로 방한해 휴전선 일대

에서 군인들의 태권도 연무시범을 하는 것을 보고 관심을 갖었으며, 최홍희가 단장으로 이끈 태권도시범단이 1959년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층들에게 태권도시범을 보인 것이 최초의 태권도의 시범단 파견이다. 그 후 1966년 대만에 13명의 사범을 파견해 8년간 교육생을 배출하였다.

1960년대 한인 사범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는 미국으로 초기에는 청도관출신이 주류를 이루었다. 미국 진출의 최초의 사례는 청도관 출신의 이준구 사범으로, 그는 1958년 미국 텍사스의 한 대학에서 클럽을 만들어 태권도를 지도하였으며, 1962년에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 최초의 태권도장을 열었다. 그리고 청도관출신 조시학은 1946년 미국에 일리노이대학원 유학생으로 미국에 진출해 1961년 뉴욕에 도장을 열어 태권도를 보급하였다. 또한 청도관출신 이행웅사범은 1962년 오마하 네브라스카에서 태권도를 지도하였고, 1969년 미국태권도협회(ATA, American Taekwondo Association)를 창립하였다.

이외에도 미국 가라테 아카데미로부터 사범 초청을 받고 박철희를 단장으로 김병수, 이강희 등 3명의 사범이 1965년 7월 말까지 1년 6개월 동안 미국에서 태수도를 교수할 예정이라는 당시의 신문보도가 있었다. 당시 태권도사범이 미국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1965년 발효된 이민법 ‘하트-셀러법(Hart-Celler Act)’의 영향으로 태권도 사범을 비롯해 간호사, 병아리 감별사, 보석 감정사 등 2만명까지 미국진출이 가능해지면서 이민이 증가한 것이다.

이 시기에 최홍희는 1965년 8월에 영문판 《태권도교본》을 펴냈다. 그리고 그는 1959년부터 1960년대 초까지 국군태권도시범단과 태권도외교사절단을 만들어 베

트남, 대만, 아프리카, 중동, 유럽 등지에서 시범을 하면서 태권도 국제기구 설립을 구상하였다. 이 결과 1966년 3월 22일 조선히텔 로즈룸에서 국제태권도연맹(ITF)을 창설하였다. 초대 가입국은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국, 서독, 이탈리아, 통일아랍공화국 등 9개국이었으며, 1년 후인 1967년에는 40여개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국제태권도연맹 창립을 계기로 대한태권도협회와 갈등이 생겼다. 이 두 단체의 갈등이 깊어지자 1968년 대한체육회가 직접 나서서 국제태권도연맹은 산하 도장을 갖지 못하도록 하면서 국제 간의 친선을 도모하는 업무와 건전한 국제대회를 관장하게 하였다. 그리고 대한태권도협회는 국내도장 설립과 국내대회 관장 및 선수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중재에도 불구하고 두 단체는 갈등이 지속되었고, 최흥회는 1971년 8월 분규수습위원회 전제회의에서 불만을 가지고 탈퇴하였으며, 수습위원회는 해체되었다.

6. 나오는 글

1950년대와 60년대는 한국전쟁을 거치며 한국사회는 다양한 변화와 시대적 강등과 정비의 시기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태권도역시 다양한 관廳중심에서 명칭제정과 대한태권도협회를 설립해 승단 심사의 통합과 품새(틀) 제정, 그리고 겨루기 경기를 통한 대한체육회의 가맹과 더불어 스포츠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군軍과 민간에 의해 해외에 태권도가 보급되었으며, 시범단 파견에서 경기화를 통한 국제기구인 국제태권도연맹의 설립을 통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확보하려 했다. 하지만 대한태권도협회와 국제태권도연맹의 갈등으로 인하여 태권도계의 혼란을 주었고, 결국은 1970년대 최흥회의

망명으로 국제태권도연맹의 국내 활동은 사실상 금지되었다. 따라서 태권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명칭과 형(틀), 경기(겨루기) 등의 체계적인 정립은 스포츠로서 기초를 다닌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1960년대 해외진출 태권도사범들은 유학이나 취직 등 개인적 해외 진출, 외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협회의 시범단 파견사범들이었다. 이 사범들은 민간외교관으로서의 한국의 정신과 더불어 태권도 정신을 알리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태권도의 국제연맹 국제태권도연맹과 대한태권도협회와의 갈등이 있던 시기로, 국제연맹의 역할과 태권도세계화에 대한 과제를 남긴 시기였다.





도판목록

도판목록

LIST OF PLATES

01

무덕관 도복

1958 | 서상렬 기증
상의 | 품 61.5 길이 174.2
하의 | 허리둘레 50.5 길이 91 밑위 37.5



02

무덕관 도복

1960년대 | 품 53 길이 81 | 강신철 기증



03

살보호대

1950-60년대 | 허리둘레 65 길이 21 | 최영길 기증



04

몸통보호구

1950-60년대 | 가슴둘레 63 길이 65 | 최영길 기증



05

몸통보호구

1950-60년대 | 가슴둘레 62 길이 62 | 최영길 기증



06

몸통보호구

1950-60년대 | 가슴둘레 76 길이 70 | 최영길 기증



07

창무관 3급증

1959 | 19.3x27 | 김영작 기증



08

창무관 초단증

1959 | 44x34.5 | 김영작 기증



09

창무관 2단 단증

1961 | 43.4x34.7 | 김영작 기증



10
창무관 2단 단증
1961 | 42.5x35 | 이성우 기증



11
창무관 3단 단증
1965 | 55x32 | 김영작 기증



12
무덕관 초단증
1959 | 43.7x31.3 | 김선동 기증



13
무덕관 2단 단증
1962 | 42.7x32 | 김선동 기증



14
무덕관 3단 단증
1963 | 39.2x30.6 | 김선동 기증



15
무덕관 4단 단증
1964 | 45.2x32.8 | 김선동 기증



16
무덕관 4단 단증
1965 | 54.2x39 | 김선동 기증



17
무덕관 5단 단증
1969 | 52.8x37.8 | 김선동 기증



18
청도관 2단 단증
1965 | 39.5x28.8 | 이종철 기증



19
청도관 초단증
1968 | 21.2x32.5 | 최병호 기증



20
청도관 2단 단증
1969 | 21.2x32.5 | 최병호 기증



21
대한태수도학생연맹 초단증
1963 | 39.5x28.8 | 이종철 기증



22
대한태수도협회 5단 단증
1964 | 39.5x27.2 | 조증덕 기증



23
대한태수도협회 2단 단증
1965 | 44x32.7 | 이종철 기증



24
대한태권도협회 4단 단증
1966 | 43.8x32.7 | 김선동 기증



25
대한태권도협회 회원증
1966 | 10.1x6.1 | 김영작 기증



26
대한태권도협회 회원증
1967 | 10.3x7 | 박창근 기증



27
대한태권도협회 회원증
1969 | 9.6x6 | 김영작 기증



28
표창장
1960 | 39x26.3 | 조증덕 기증



29
표창장
1966 | 42.2x34.5 | 조증덕 기증



30
표창장
1969 | 27x38 | 안해옥 기증



31
제2회 개인선수권대회 메달
1965 | 4.7x5.8 | 최권열 기증



32
제2회 전국신인선수권대회 상장
1966 | 44.5x32.5 | 최권열 기증



33
일본 파견 선수 선발대회 상장
1966 | 44.5x32.5 | 최영길 기증



34
일본 파견 선수 선발대회 상장
1966 | 38x26.5 | 최영길 기증



35
일본 파견 선수 선발대회 상장
1966 | 44.5x32.5 | 최권열 기증



36
일본 파견 선수 선발대회 상장
1966 | 44.8x32.8 | 김성동 기증



37
일본 파견 선수 선발대회 상장
1966 | 39.5x29.5 | 최영길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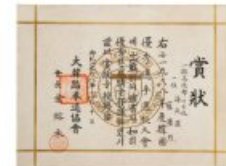
38
한국우수선수선발대회 상장
1967 | 44.5x32.5 | 최권열 기증



39
한국우수선수선발대회 메달
1967 | 5.3x6 | 최권열 기증



40
한국우수선수선발대회 상장
1968 | 44.5x32.5 | 최권열 기증



41
한국우수선수선발대회 메달
1968 | 4.9x5.8 | 최권열 기증



42
한국우수선수선발대회 메달
1969 | 5x6 | 최권열 기증



43
제45회 전국체육대회 자료집
1964 | 18.5x25.6 | 김영선 기증



44
제45회 전국체육대회 보고서
1964 | 18.5x25.4 | 김영선 기증



45
제13회 서울특별시체육대회 겸
제46회 전국체육대회 예선 자료집
1965 | 18.7x25.6 | 김영선 기증



46
제46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선수증
1965 | 9.3x6.3 | 이경명 기증



47
제46회 전국체육대회 상장
1965 | 32x23 | 최권열 기증



48
제46회 전국체육대회 메달
1965 | 4.7x5.9 | 최권열 기증



49
제14회 서울특별시체육대회 겸
제47회 전국체육대회 예선 자료집
1966 | 18.4x25.1 | 김영선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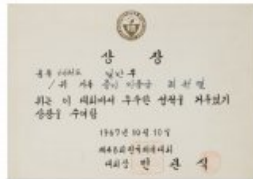
50
제47회 전국체육대회 자료집
1966 | 18.5x25.7 | 김영선 기증



51
제47회 전국체육대회 메달
1966 | 6x7 | 최권열 기증



52
제48회 전국체육대회 상장
1967 | 33x23.6 | 최권열 기증



53
제48회 전국체육대회 메달
1967 | 6x6.7 | 최권열 기증



54
제49회 전국체육대회 상장
1968 | 35.5x26.5 | 최권열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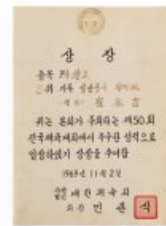
55
제49회 전국체육대회 상장
1968 | 35.5x26.5 | 최영길 기증



56
제49회 전국체육대회 메달
1968 | 4.8x5.5 | 최권열 기증



57
제50회 전국체육대회 상장
1969 | 24.5x33.3 | 최영길 기증



58
제50회 전국체육대회 상장
1969 | 25.5x36 | 최권열 기증



59
제50회 전국체육대회 상장
1969 | 25.5x36 | 최권열 기증



60
제50회 전국체육대회 메달
1969 | 5x6 | 최권열 기증



61
제50회 전국체육대회 기념우표
1969 | 3.7x2.6 |



62
전라북도 체육상 메달
1965 | 3.7x4.5 | 최권열 기증



63
전라북도 체육상 트로피
1969 | 15.2x46 | 최권열 기증



64
화수도 교본
1949 | 13.5x19.3 | 황현석 기증



65
태권도 교본
1950년대 | 19x25.4 | 김수련 기증



66
파사권법
1958 | 16.3x23.3 | 이규석 기증



67
태권도 교본
1959 | 15.7x18 | 김영선 기증



68
태권도 교본
1960 | 18x25 | 정순천 기증



69
태권도 교본
1966 | 18x25 | 허인옥 기증



70
태권도 지침
1966 | 19.2x26 | 정순천 기증



71
태권도 교범
1968 | 16.3x22.5 |



72
태권도 교본
1968 | 12x19 |



73
주월한국군사령부 창설 2주년 기념
태권도시범 리플릿
1966 | 13.8x20.9 | 류시황 기증



74
제1회 군사령관우승기 쟁탈
태권도시합 리플릿
1966 | 13.2x20 | 류시황 기증



75
월남의 태권도
1967 | 20.3x26.5 | 류시황 기증



76
제3회 주월한국군사령관기 쟁탈
태권도시합 팸플릿
1968 | 19.8x25.6 | 류시황 기증



77
주월 태권도 교관단 기념패
1967 | 25x30.8 | 류시황 기증



78
감사패
1962 | 9x11.4 | 안해육 기증



79
임명장
1961 | 35.9x26.2 | 김영작 기증



80
임명장
1968 | 40.7x28.5 | 서명수 기증



81
위촉장
1969 | 18.8x26.6 | 조중덕 기증



국립태권도박물관 주요 소장품도록

(1950~1960년대)

발행일	2021년 12월 24일
발행	태권도진흥재단
총괄	오응환
기획	장희식
논고	송형석 허건식
자료정리	신수라
교정·교열	류선희 김정연 신수라 송봉수 정혜인
사진	최지현 (ZEBRA 스튜디오)
제작	중앙프린텍



ISBN 979-11-976950-0-1